

SK, 국내 첫 체험형 연수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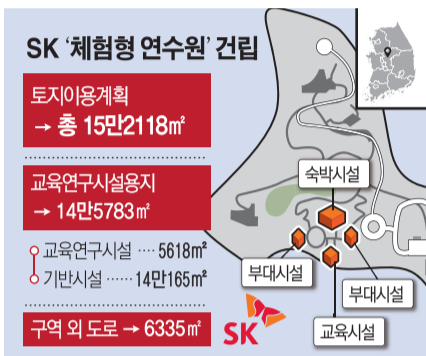
충북 영동군에 축구장 22개 규모의 초대형 부지 조성
2022년 완공 목표...최태원 회장의 '행복경영' 실천장

SK가 충북 영동군에 축구장 22개 크기의 연수원을 건립한다. 기존 연수원들과는 달리 '아웃도어 액티비티' 체험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SK(주)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일대 15만㎡(약 4만5000평) 부지에 연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수원에는 교육시설,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K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을 보면 해당 부지를 활용해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신개념 체험형 연수시설로 조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SK는 연수원 설립 목적으로 "지속성장과 구성원의 잠재적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연수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연수의 특화 계획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적 외부 공간 계획과 수준 높은 공간 구성으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수시설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연수원은 SK(주)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만, 추후에 그룹 차원의 연수원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있다. SK(주)에 속한 중주연수원도 현재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일정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 중심의 연수원을 만드는 것은 국내 기업 중 SK가 처음이다.

SK가 새로운 개념의 연수원을 짓는 것은 구성원들의 행복과 패기, 열정 등을 강조하는 최태원 회장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올 1월 열린 '그룹 신입사원 교육-회장과의 대화'에서 "신입사원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패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행복 추구를 위한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어 달라"며 "그런 실천이 SK는 물론 사회 전체 행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 시대의 인재는 패기와 함께 삶과 일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기업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행복을 더 키우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의 연수원 운영에도 자신의 신념과 경영철학을 반영해왔다. SK하이닉스는 평소 최 회장이 강조한 '구성원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최근 새로운 연수원을 짓기로 했다. 경기 이천시에 총 1590억 원을 들여 3만6000평 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오늘 스승의 날...감사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스승의 날 행사를 생략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기념 영상을 공유한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중학교에서 교사가 생방송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의 감사인사에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뉴스시

한진칼,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3000억 필요... "자산 매각·담보 대출로 마련"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주주 배정 물량 이상을 청약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총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자금 조달은 보유 자산 매각과 담보부 차입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13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총 발행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기로 해 한진칼의 부담이 줄었지만,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현재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유상증자에

주주 배정 물량 이상을 청약하기로 했다.

한진칼이 주주 배정 물량만 소화하려면 2400억 원만 투입하면 되지만 이 경우 유상증자 후 한진칼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기존 29.96%에서 27.05%로 2.91%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한진칼의 기존 지분을 유지하려면 3000억 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진칼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412억 원에 불과해 추가 자금을 보유 자산 매각 및 담보부 차입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진칼은 "매각과 차입 방안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별도의 이사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대법 "국세청, 론스타 '과세 정보' 공개하라"

5兆 USD 청구 근거 4년 만에 나올 듯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의 근거가 4년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 ISD 관련 정보 접근을 제한해 온 정부의 사건 처리 폐쇄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7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 달러(약 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5조 원이 넘는 청구금액은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청구금액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국세청에 세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6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론스타에 부과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합계액과 신청인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우리 딸은 이거 해줬어~"

뿌듯함을 선물하세요

W효도적금

자녀가 부모님 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효(孝) 테마 상품

- 기본혜택** : 최고 금리 연 1.6%(2020.05.01 기준/세전) · 오래오래 효도하세요~ 10년간 만기자동갱신 · 효도 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 가능(1년 2회)
- 부가혜택** : 잊지 말고 전화하세요~ 부모님 기념일 알람 서비스 · 상호 서비스 할인 및 무료 컨설팅 · 치과, 안과 등 의료비 할인 정보 서비스 · 효도 여행에 필요한 환율 우대 서비스

본법상적인 설명서 제 2020-2022년 05.04 개정판 · 2021.04.29 - 이 계약금(상품)은 예금지보잔액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잔액과 동일하며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 '최고 50만 원'이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상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자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할리과거구에 해당할 경우 저거나 금융분포장(약관)을 통해 분할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제 1332, IBK기업은행 4000-80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평생교육을 받기 않습니다. 용역명령 위반 사항이나 개인적 필요할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제롬 파월



앙헬 구리아

“추가 재정 부양” vs “막대한 빚폭탄” ‘최악의 경제’ 해법 놓고 화상舌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기침체 대응 방안을 놓고 세계 경제 사령탑 사이에서도 의견이 강하게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날 파월 의장과 구리아 사무총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주최한 화상 연설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추가 재정 부양책이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하자, 구리아 사무총장이 “막대한 빚더미로 세계 경제가 이후 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일침을 놓은 것이다.

파월 의장은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시기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며 “경기하강의 폭과 속도는 전례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

제롬 파월 美 연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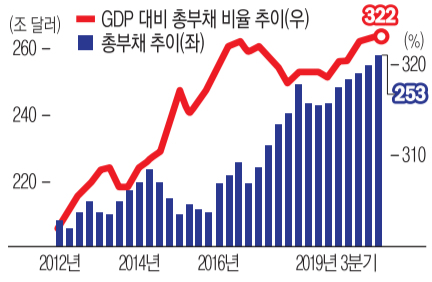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 後 전례 없는 침체 보조금 등 재정 지출 확대 필요 경기 침체 장기화 탈출 디딤돌

다. 그는 “연준의 정책 대응은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편이었지만 그것이 마지막 장은 아닐 수 있다”고 자평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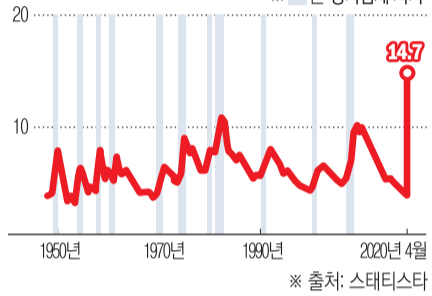
또 파월 의장은 “추가 재정 지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피하고 더욱 강한 회복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준의 긴급 자금 공급은 어디까지나 대출이지 지출이 아니다”라며 “감세와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산업 전체의 자금 여력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연준과 미국 정부는 모두 코로나 사태에 맞서기 위해 전례 없는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연준은 3월 이후 제로(0) 금리와 양

글로벌 총부채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추이



1948년 이후 미국 실업률 추이



적완화 정책을 부활시켰고, 회사채 매입과 간접 용자를 통한 기업 자금 지원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볼 수 없었던 온갖 정책을 쏟아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V자형’ 경제 회복 확신 안 들어 대다수 국가 충격 회복 최소 2년 추가 부양책 대가 치르게 될 것

백악관과 미국 의회도 3~4월 3조 달러(약 3700조 원) 가까운 재정 부양책을 쏟아냈으며 야당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금까지 동원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새 부양책을 최근 제시했다.

여전히 경제침체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14.7%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찍었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실업률이 25%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파월 의장은 특히 현재 저소득층의 타격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준 자체 조사에서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인 미국 가구 중 40%가 2월 이후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파월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불확실성 발언에 이날 미국증시는 또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2%, S&P500지수는 1.8% 각각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1.6% 빠졌다. 미국증시가 3일 연속 하락한 것은 거의 2개월 만이다.

그러나 구리아 사무총장은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우리가 기존 규칙을 던져 버리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 공중보건 이슈에 대응하면 전체적인 비용은 낮아질 것”이라고 파월 의장의 의견에 일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구리아 총장은 “결국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다시 날려고 할 때 무거운 부채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가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U자형 회복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U자형의 하부를 좁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유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올해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엔 경제사회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상황 예측’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다.

유엔은 1월 1.8~2.5%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불과 4개월여 만에 성장률을 마이너스대로 낮췄다.

UN “올 세계 경제 성장률 -3.2% 전망”

“코로나19 2차 유행 땀 -4.9%... 국경 봉쇄 등 내년까지 연장 가능성”

유엔은 또 코로나19의 제2차 감염이 발생했을 시에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4.9%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외출 제한이나 국경 봉쇄 등의 조치가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엘리엇 해리스 유엔 수석 이코노미스트

는 “경제 활동 중단과 이동 제한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2분기 세계 경제는 사실상 정지됐다”며 “현재 우리는 대공황 이후 본 적 없는 심각한 불황이라는 어두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5.0%,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

데 미국은 -4.8%, 일본은 -4.2%로 예상됐으며, 고도 성장세를 이어온 중국도 1.7%의 플러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유엔은 “세계 경제에서 올해와 내년엔 줄어드는 생산 감소분은 8조5000억 달러(약 1431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의 누적 생산량 증가분이 거의 사

라지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은 “코로나19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 사회보험, 실업보험제도 등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극도의 빈곤(하루 생활비 1.9달러 미만)에 빠지는 사람이 기존 예상보다 34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극도의 빈곤을 없앤다는 계획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예상보다 빈곤에 빠지는 사람이 2030년에 1억60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선 기자 hsbun@

부모님께

선생님께

부부사이에도

고맙다 마그비!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액상형으로 흡수가 빠른, 마그네슘 제제

마그비스피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 함유 (마그네슘으로서 150mg)

마그비 연질캡슐도 있습니다.

광고심의필 : 2020-1531-002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공공일자리 156만개 창출... 대부분 노인·청년 단기알바

정부, 고용충격 긴급처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재정일자리 공급과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재개한다. 앞서 발표한 '직접일자리 55만 개+알파(α)'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에 채용한 공무원까지 더하면 총 재정·공공일자리 공급량은 156만 개가 넘는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1)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47만 6000명 감감하는 등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본예산 사업으로 계획된 직접일자리 94만 5000개 공급을 5월부터 재개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계획인원 중 77만 8000명을 선발했으나, 44만 6000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직 중이다. 우선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작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일자리를 추려 재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일자리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아직 선발하지 않은 16만 7000명은 면접 등 선발 절차,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으로 비대면·디지털 등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추가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

100만개는 이미 계획된 일자리 코로나 대응 신규공급 체감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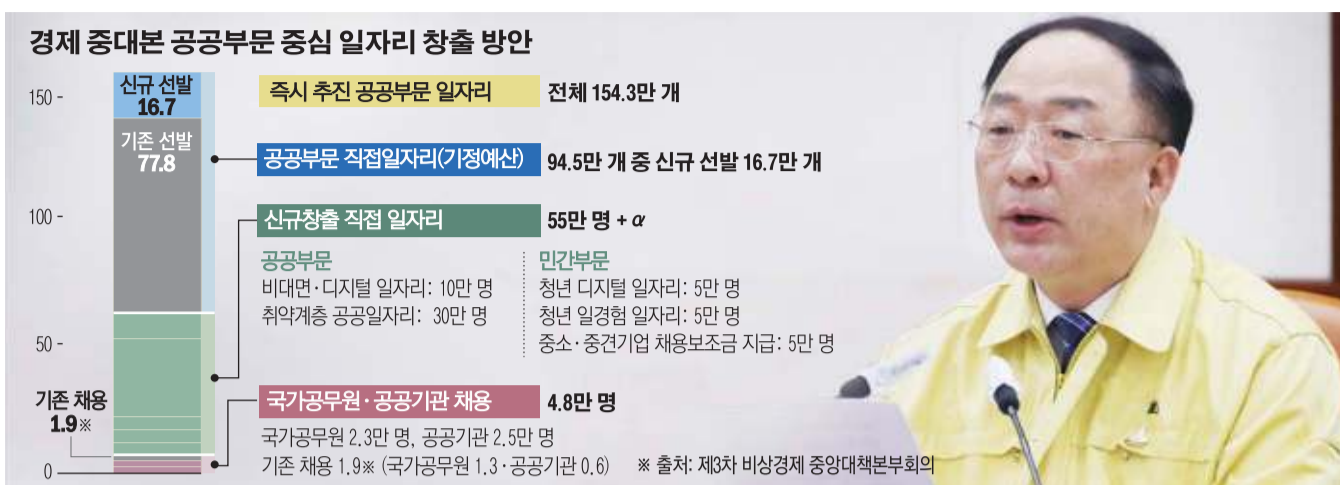
“노인일자리 재탕...땀질처방 그쳐 민간기업서 양질 일자리 창출돼야”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주요 분야는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기획·제작지원, CV 방역 등으로, 주 근로시간은 15~40시간이며 최대 6개월간 근로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4대 사회보험도 적용된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에는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와 청년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소득 보전을 위한 임시일자리인 만큼, 최저임금이 보장되거나 주 근로시간·기간은 각각 30시간, 5개월 이내로 짧다.

민간 부문에선 구직청년층 취업으로 완화를 통해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3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각각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가공무원 2만 3000명과 공공기관 2만 5000명에 대한 신규채용은 5월 중 개시한다. 기재용 인원은 1만 9000명이다. 부문별 신규채용 인원은 교원이 1만 2863명, 인사혁신처 공개채용 6110명, 경찰은 5825명 등이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을 제외한 재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일자리는 5~6개월 한시 일자리란 점에서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 노인일자리와 유사한 형태로는 통계상 지표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재정상 문제로 이런 일자리는 지속이 어렵다. 단기적으로 재정으로 고

용충격을 완화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량도 뚜렷한 성과를 보지엔 부족한 규모다. 정부가 156만 개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언도, 이 중 100만 개 이상은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것이어서다. 추경 등으로 신규 공급되는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추정되는 취업자 감소분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관건은 얼마나 빨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과 고용 창출력을 정상궤도로 되돌려놓느냐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겸 경제중대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렇게 (재정일자리 공급으로) 1차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동시에, 조금씩 우리 사회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다른 나라의 봉쇄조치도 완화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DI ‘정년연장, 연령별 영향’

정년 연장 수혜자 1명당 청년 고용 증감 효과

종사자 규모	10~99명	100~499명	500~999명	1000명~	10~999명
청년고용 효과	+0.03명	-0.19명	-0.26명	-1.00명	-0.22명
통계적 유의성	없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기준에 따라 낮거나 없음	매우 높음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데이터베이스(DB) 원자료 분석

“고령자 고용연장 1명 늘 때마다 청년층 일자리 0.2명 줄어들어”

“기업규모 클수록 부작용 커져 단계적 시행으로 충격 줄여야”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면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지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정년이 짧을수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한요섭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는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맞춰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고령가구 소득·소비 감소를 막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단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령층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일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

고용은 약 0.6명 증가했다.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10인 이상 100인 미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정년 연장 수혜자에 비해 실제 고용 증가 효과가 작은 건 정년이 연장됐다고 해도 명예퇴직으로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이나, 건강이나 가족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존재해서다.

반면,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추정치는 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작았다. 더불어 정년 연장의 폭이 컸던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존 정년이 55세 이하였던 경우에는 수혜자 1명당 청년 고용이 0.4명 줄었으나, 58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롯데칠성음료



- 1970년 완행열차 카트 속에
- 1988년 동네 돼지갈비집에
- 1998년 소녀시절 소풍날에
- 2002년 외할머니댁 화채 속에

청량한 기억이 있는 모든 순간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진짜사이다는 그곳에 칠성사이다 70th Anniversary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콜바르게

〈글로벌 가치사슬〉

정부, 내달 유턴기업 지원·GVC 재편 대책 내놓는다

GVC 변화에 한국 직격탄... 이달 들어 수출 46% 주저앉아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절실... 성윤모 “전기료 합리화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6월 말 유턴 정책과 기업 차원에서 대응 전략, 산업적·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GVC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GVC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품의 설계, 원재료·부품 조달, 생산, 유통·판매 등 각 과정이 다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형성된 분

업 체제다. 국제적 분업과 협력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그러나 그만큼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멈추는 바람에 한국 수출이 위축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GVC의 붕괴는 전형적인 무역 의존 국가인 한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 수출은 지난달 전년 대비 24.3% 감소한 369억2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46.3% 급감했다.

이에 글로벌 분업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코로나19와 같

은 외부 돌발 변수에 맞설 수 있는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성 장관은 “GVC 재편 대책은 리쇼어링(reshoring·유턴기업) 대책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먼저 필요하고, 나아가 산업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지 지원 제도 시스템과 현재까지 공급선을 하나만 갖고 있는 걸 다양화했을 때 제도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턴 기업 정책은 우리 제도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과거 했던 것을 줄이고 연관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차 전

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이후 전기요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전력 요금에 대한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석탄 발전이나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뉴딜과 관련해선 “즉시 프로젝트화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환경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의 합동 서면보고를 받기로 했다.

산업부가 고민 중인 그린뉴딜은 △2~3년 이내에 성과 도출할 수 있는 것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기존사업의 단순 확대가 아니라 상징성으로 카테고리화해서 프로젝트화할 수 있는 내용 △실제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 중심이다.

성 장관은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친환경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같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수소트럭·택시 실증 협력 MOU

성윤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충남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열린 '수소트럭 및 수소택시 실증 협력 MOU 체결식'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브랜드형 택시 20만대로 확충

승차거부 없이 5분 내 이용

정부가 2030년까지 카카오·미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현재 4000대에 20만 대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승차거부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기시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현재 8조 원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5~6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성장한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은 건당 500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합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 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의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납부방식은 이용 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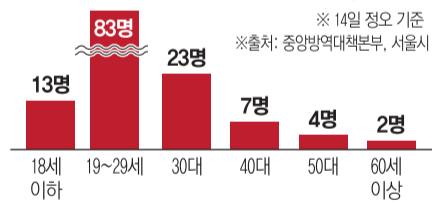
이날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비전 2030’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 원 규모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차거부 민원 제로화, 자가용 분담률 50% 이하, 대기시간 5분 이내, 중형승용 의 차량비중 30% 이상, 친환경 모빌리티 50% 이상 등의 목표를 정했다. 2030년이면 2개 이상의 유니콘기업을 포함한 5~6개 이상의 모빌리티가 경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이태원發 3차 감염자 발생... 2500여명 아직 연락두절

클럽 관련 확진자 누적 133명
홍대 전파경로 불명 감염 4명
교회 예배 재개 등 이번주 고비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 연령별 현황



됐다. 인천에선 학원 강사로부터 학생, 과외 교사로 이어지는 3차 감염까지 발생했다. 감염 경로가 3차 이상으로 이어지면 추가 확진자·접촉자 파악이 늦어져 그 사이 지역사회 확산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여기에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250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이에 방역당국도 통신기록, 폐쇄회로(CC)TV, 카드 사용내역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클럽 방문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홍대 주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아직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방대본은 이번 주말을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 종교시설도 생활속 거리두기와 함께 예배가 재개됐고 다양한 모임도 시작됐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확산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인천에선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홍대에선 감염경로 불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29명 증가한 1만9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3명은 해외유입, 26명은 지역발생이다. 지역발생은 20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4명은 홍대 주점 집단감염 사례다.

이태원 클럽 사례는 이날 0시부터 12시까지 2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3명), 경기(25명), 인천(18명) 등 수도권이 116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8명), 부산(4명), 충남(1명), 전북(1명), 경남(1명), 강원(1명), 제주(1명)가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별로 클럽 직접 방문자는 82명, 가족 등 접촉자는 51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클럽 주이용층인 19~29세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3명이었다. 인천에서 학원 강사가 미확진 상태로 추가 전파를 일으켜 18세 이하 확진자도 13명이나

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15일 고시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중장기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한 결과 2029년 내수면을 포함해 3만5000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10년 내 전국 70곳에 마리나항만 조성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정부가 경기 시화호, 인천 영종, 부산 대포, 제주 김녕 등 전국 70개소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

마리나항만이란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수역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후 배출량 첫 감소

작년 배출량 전년비 2% 감축
발전·에너지 등 업종 크게 줄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배출량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기업이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5억8941만 톤으로, 전년 배출량 6억150만 톤 대비 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소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2~5%씩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과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에서 배출량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발전·에너지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5290만 톤으로, 전년보다 2169만 톤이 줄어들며 가장 많은 배출량 감소치를 보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 유연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전환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에선 배출량이 증가했다. 철강 업종에선 조강 생산량이 증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750만 톤이 늘어난 1억1128만 톤으로 집계됐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여유량은 최소 246만 톤에서 최대 832만 톤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지난해 397개 업체는 할당량보다 더 많은 2869만 톤을 추가 확보했지만, 206개 업체에선 2038만 톤이 부족했다.

업종별로 정유와 폐기물, 디스플레이는 여유가 있는 반면 발전·에너지와 비철금속에서는 배출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토한 뒤 적합성 평가,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말에 배출량을 확정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향도 파악해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세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정산 전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정보 또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문 대통령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적극 돕겠다”

청년 스타트업 리더 21명 만나 “비대면·온라인 등 집중 지원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창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비대면 분야 등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 중인 청년 스타트업이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0일 있었던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첫 현장 행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한 21명은 미국 포브스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할 상징적 펀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앞서 급성장할 예정되는 언택트, 온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민간 합동 공동펀드 조성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의 열정과 노력,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으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를 제공하던 ‘코로나맵’, 마스크 재고상황을 실시간으

로 알려주던 ‘마스크맵’, 코로나 감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진단 시약’과 ‘진단 키트’를 조기 개발한 것도 벤처·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한다”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 발굴 및 시장 개척 지원, 올해 말까지 2조2000억 원 자금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긴급지원 방침 등을 소개하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혁신성장의 불꽃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면 스타트업의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5G,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선도형 경제를 위한 3대 추진 방안을 곧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기업 우수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전략 발표, 참석자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정일환 기자 whan@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첫 회동...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

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갯갯’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원격의료 도입’ 논란에 당청 속도조절

“특수 상황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추진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도입 찬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단 숨을 고르며 여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조경식 정책위 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입장이며, 논란이 되는 개념의 ‘원격의료’를 당청이 협의하거나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연일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날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도 비대면 의료 산업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상담·처방’이 방역 성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원격의료 추진의 동력이 됐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꿈은 작은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DB가 당신의 꿈에 박수를 보냅니다



美 “화웨이 제재 연장” G2갈등 확산 中 “IT장비 심사 강화”

美 정보당국 “中에 해킹 당해” 中, 美 겨냥 “보안심사 의무화” 1단계 무역합의 무효화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데, 이는 물론 추가적 제재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대미 보복 태세를 취하는 등 무역전쟁에 이어 미·중 간에 새로운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은 해커들이 코로나19의 치료·예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지식재산물을 훔치려 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경계하고 성토해왔는데 코로나19로 대립이 더욱 심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FBI와 CISA는 이번 해킹에 중국이 개입했는지 뒷받침하는 증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책임으로 몰아가며 대중국 제재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를 겨냥한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들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이 행정명령은 특정 회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 장비업체의 미국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데 사용됐다. 또 화웨이 등은 구글이나 ARM처럼 중요한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이반 주초트럼프가 미국 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면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연방퇴직투자저축위원회(FRTIB)는 이날 45억 달러(약 5조5200억 원)에 달하는 중국 주식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구체적으로는 FRTIB가 감독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이자 대표적 공격연금인 연방공무원저축계정(TSP)이 당초 500억 달러 규모 국제펀드인 ‘펀드 벤치마크’를 올 하반기에 중국 주식이 포함된 MSCI미국제외전세계지수로 전환하려 했으나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미국에 맞서 중국도 자국 시장에서 미국 IT 기업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보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6월부터 통신과 교통, 금융 등 공공 인프라 운영 기업이 서버 등 IT 장비를 조달할 때 보안심사를 의무화한다. 기업들이 IT 장비를 조달하기 전에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위험 분석 결과를 당국에 제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휴렛팩커드(HP)나 델테크놀로지 등 중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미국 IT 기업들이 퇴출될 위험이 커졌다.

또 중국은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코로나19의 우한연구소 기원설을 전면 반박하는 한편을 초체결했던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탈출한 글로벌 펀드 자금, 中으로 몰린다

기업들 코로나 타격에 새 기회 모색... 中 증시 비중 6년 전보다 8%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사회에서 ‘탈(脫)중국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전 세계 자금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EPFR글로벌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자금이 중국으로 더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미국 증시가 3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800개 이상 펀드의 운용 자산 2조 달러 중 중국 주식에 할당된 자금이 25%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20%에서 증가한 것이며, 6년 전 17%보다도 늘어난 규모다.

토드 윌리츠 EPFR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외국 매니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있다”면서 “중국 비율을 높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미국 증시 폭락장은 4월 들어 회복됐지만 중국 증시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12일까지 5.2% 하락에 그친 반면, 미 증시 주요 지수인 S&P500지수는 하락 폭이 11.1%에 달했다.

EPFR는 최근 중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일시적이었으며, 펀드들이 전체 투자 수익 목표를 맞추기 위해 중국 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지역 투자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금의 중국 유입은 코로나19로

확산하고 있는 대중 압박 분위기와 대조된다.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과 관련한 회계 부정 스캔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루이싱커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액이 22억 위안(약 3700억 원)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루이싱커피 주가는 80% 이상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재에도 중국 증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고 심지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8일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김소프트 클라우드는 루이싱 스캔들과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첫 기업이 됐다. 상장 후 3거래일 동안 주가는 40% 이상 오르면서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로 뛰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항공株 이어 은행株마저 ‘손절’ 투자 발빠는 버핏, 다음 타깃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사진)이 이끄는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가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이번 주 버크셔는 미국 대형 지방은행 US뱅크의 주식을 상당 규모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가 보도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버크셔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US뱅크 주식 49만7786주, 1630만 달러(약 200억 원)어치를 매각해 현재 1억5050만 주만 갖고 있다.

US뱅크는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규모의 지방은행으로, ‘US뱅크’라는 브랜드로 점포를 운영한다. 버크셔는 US뱅크의 지분 약 1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는데, 매각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번에 상당한 규모를 팔아치운 것이다. 이는 버크셔가 미국 항공주를 손절매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움직임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동안 버핏은 미국 은행주 애잔론자였다.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세에 미국 은행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버크셔는 US뱅크 외에 뱅크오브아메리카



(BoA)와 웰스 파코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의 최대 주주이며,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핏은 2일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4대 항공주를 모두 팔았다고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다. 당시 버핏 회장은 “항공산업의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세상이 바뀌었다. 3~4년 뒤에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비행기를 많이 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주총에서는 미국 은행주에 대한 눈에 띄는 발언은 없었다. 다만 향후 투자 판단의 변화가 밝혀질 경우 관련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버크셔가 미국 4대 항공사 지분을 모두 처분한 데 이어 은행주까지 매도하면서 ‘다음 투자처’ 보다는 ‘다음 매각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변호선 기자 hsbun@



“자택격리 종식을 위하여~”
美 시민의 ‘위험한 축배’

미국 위스콘신 주 애플턴의 한 바에서 13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기쁨에 차 이웃들과 축배를 들고 있다. 위스콘신주는 한 차례 연장해 26일까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에 대해 현지 대법원이 주지사 권한 밖이라며 주의회와 협력해 다시 결정하라고 판결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졌다. **애플턴/AP연합뉴스**

“2025년까지 여행수요 회복 못해” IATA ‘비관 전망’에 항공株 폭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항공업계의 불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글로벌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도 전 세계 항공 승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내놓은 전망치를 10%가량 밑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IATA는 내년 항공 수요는 코로나 이전 전망치보다 최대 40%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러도 2023년까지는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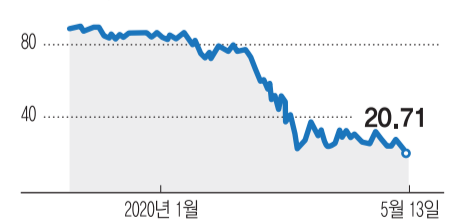
수요가 작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렉산드레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에 반대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항공 수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만, 희망적인 건 중국 수요가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IATA의 브라이언 피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전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중국에 대한 수요 기대는 다소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항공 수요 침체가 장기화할

유나이티드항공 주가 추이
(단위: 달러, 현지시간 종가기준)



것이라는 소식에 이날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 대형 항공사로 구성된 S&P500항공 지수가 한때 8% 폭락해 하루 기준 201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 66% 하락해 S&P500지수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9% 폭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델타항공은 7.7%, 사우스웨스트항공은 4.91% 각각 폭락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대표님의 자산, 지금 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 GFC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로
 기업경영에 발생하는 Risk 관리와 Financial Consulting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입니다.
 대표님의 귀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절세부터 승계까지 삼성생명 GFC와 상의해보세요.

서울(시청) 02-772-9306, 02-318-0527

서울(강남) 02-514-9017, 02-540-6029

인천 032-426-9476

수원 031-221-0326

대전 042-488-0646

부산 051-637-1826

대구 053-254-1132

광주 062-382-1291

'외화채 비위' 떨고 있는 수은... 임직원 줄소환 예고

금융 인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로부터 항응과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을 당시 경찰 수사 인력이 마스크 불법유통 및 독점유통 수사에 집중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수출입은행 건을 다시 수사 우선순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수출입은행 일부 임원이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2계 3팀에 배정하고 재수사를 시작했다. 지수대는 이번 이번 주부터 수출입은행 관련 부서

주관사 선정 과정서 접대 의혹
경, 코로나19 둔화에 수사 재개

방문규 행장 "신임 단장 임명 등
채권발행 시스템 전반적 개선"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수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입은행 건 수사가 지연된 것이 맞다. 파스크 사건같이 먼저 수사해야 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등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직 기소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입은행의 산



업 지원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일정 기간 미뤄달라는 수출입은행의 요구도 수사가 잠정 중단된 배경의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수출입 금융 지원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수출입은행이 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에 관련 내용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작년 말부터 수출입은행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의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내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외화

표시채권 공모 발행 시 주관사 선정 절차 규정에 따른 주관사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주관사를 선정 한 뒤, 사후에 주관사별 평가표를 작성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담당 업무 직원들이 뉴욕과 런던, 홍콩 등에서 진행된 해외투자 설명회에서 주관사로 선정된 증권사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고 감사보고서에 명시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감사원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발행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개선했다. 현재 준법감시 조직이 주관사 선정 전 과정을 참여하고 점검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 증권사와 특정 이해관계가 없고 채권조달 업무 전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신임 단장을 직접 임명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기자 contest@

농협銀-토스 '하이브리드 간편결제' 동맹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 본격화

NH농협은행과 금융플랫폼 토스가 마이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농협이 보유한 독자 API와 토스의 혁신 서비스를 결합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파격적인 혁신 채널은 물론 간편결제, 송금, 디지털 서비스 등 전방위 디지털 융합을 꾀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하이브리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간편결제 핀테크 기업이 거래 종류나 여건에 따라 오픈뱅킹 공동·팝업·은행 API 등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NH농협은행은 토스에 예치금 관리, 환전, 공과금 조회 등 140개의 API를 제공한다. 토스는 이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제휴로 토스는 은행 시스템 점검 시간이나 통신 장애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정부, 한은서 빌린 돈 '14.9兆'... 메르스 이후 최대

<3월 기준>

코로나 사태 적극 재정 영향 세출 집행·세입 감소도 한몫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적극적 재정과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 때문이다. 들어오는 수입인 세입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반면, 나가야 할 돈인 세출은 예상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정부 통합계정과 양국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한은대출금 규모는 3월 말 기준 14조913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9월 15조6172억 원 이후 최고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세입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과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세입이 예년만큼 따라주지 못했지만 세출은 계획대로 해야 하니 일시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월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와 부가세가 납부된 4월엔 한은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적극재정을 위해 단기차입 성격인 재정증권 발행도 늘리는 중이다. 실제, 올 들어 현재까지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총 2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한 해 규모 48조 708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각각 11조7000억 원과 12조2000억 원에 달하는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데 이어, 3차 추경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매년 국회 승인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금 한도를 부여받고 있다. 올해 한도는 총 40조 원으로, 부문별로는 통합계정 30조 원, 양국관리 2조 원, 공공자금 8조 원이다. 특히, 통합계정은 2013년 전년 대비 10조 원 증액된 30조 원으로 결정된 이래 8년째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와 같은 개념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여!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여!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드립니다.	내 PC 원격접속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채팅&메신저(WE톡) 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메신저입니다.	화상회의 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면과 문서를 공유하며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팩스 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메일(1G) 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웹오피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어디서든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조직도를 통한 직원관리, 수 많은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연락처/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WE드라이브(10G) 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	일정관리 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	할일관리 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포스코케미칼 ‘전기차 시대’ 준비...새 양극재 라인 준공

**고성능 배터리 ‘하이니켈’ 제품
광양 2단계 연산 2만5000t 규모
구미 포함 4만t 생산력 확보
전기차 최대 75만대 공급 목표**

포스코케미칼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 2단계 증설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 포스코케미칼은 14일 전남 광양시에 건설 중인 양극재 광양공장의 2단계 연산 2만5000톤(t) 규모 생산라인 준공식을 열

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명환 LG화학 사장 등 지역사회와 고객사 관계자를 비롯해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 오규석 포스코 신성장부문장 부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유성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손건재 포스코ICT 사장 등 포스코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준공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광양공장의 생산능력을 연 5000t에서 3만t으로 확대했다.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운영 중인 연산

1만t 규모 구미공장을 포함하면 연 4만t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광양공장의 확장 준공은 전기차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양산 기반을 적기에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하이니켈 NCM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니켈의 비중이 높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NCM계 양극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양극재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케미칼은 2018년 8월부터 광양

울산산단에 축구장 20개 크기인 16만 5203㎡ 면적으로 하이니켈 NCM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산 9만t 규모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60KWh급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약 75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광양공장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국내를 비롯해 유럽, 중국, 미국 등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에 공급된다.

포스코케미칼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19년 610만 대에서 2020년 850만 대, 2025년에는 2200만 대로 퀀텀점프라 불릴 만큼 급성장하고, 이에 따라 양극재 시

장도 2019년 46만대에서 2020년 61만, 2025년에 275만대로 연평균 3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통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가속화해 미래 수요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2023년 연산 기준으로 천연흑연 음극재 10만5000t, 인조흑연 음극재 1만6000t, 양극재 9만t까지 증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성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주)두산 1Q 순손실 3800억
3조 자구안 발표는 미뤄**

3조 원이 넘는 자금 조달 방안 고심에 여념이 없는 두산그룹이 자구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14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주)두산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두산중공업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1분기 실적 보고만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자산매각, 제반 비용 축소 등을 통해 3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두산중공업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두산그룹은 두산타워 매각작업에 돌입했으며,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된 (주)두산의 자회사 두산솔루스 지분 매각 재개, 모토롤BG 부문 매각은 물론 두산중공업의 에너지 플랜트 자회사 두산메카텍, 부동산인 골프장 매각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두산은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들고 나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74.4% 줄어든 909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손실은 3799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4조427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두산은 거론되고 있는 매물을 모두 매각하고 유상증자, 오너가 사재 출연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해야 3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LG화학, 卍 사고 피해 복구 총력

**‘가스 누출’ 추가대책 발표
주민 건강검진·환경조사 실시
200명 전담반, 애로사항 청취
중장기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LG화학의 인도 현지법인 LG폴리머스가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보상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LG폴리머스는 14일 “최근 본사에서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단’을 파견했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보상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전날 LG화학은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인도 현장 지원단 8명을 파견했다.

이날 LG폴리머스는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 기관과 협의회 가능한 모든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정 병원에서 주민 건강검진과 항후 치료 제공도 책임지고 진행하고 △전문기관을 선정해 건강과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

역사회와 함께할 중장기 사회공헌활동(CSR)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폴리머스는 현재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200여 명의 전담 조직을 꾸려 병원 및 주민 위로 방문, 복귀 주민들을 위한 음식 제공, 주민지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핫라인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LG폴리머스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만들어 관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G폴리머스는 자간모한 레디안 드라프라데시 주총리의 명령에 따라 공장 및 부두의 스티렌모노머(SM) 재고를 국내로 이송한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공장은 만반의 조치로 완벽히 통제된 상황이지만, 만약의 위험 제거를 위해 재고를 국내로 이송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는 7일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주민 10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내 지갑에 과일 있다”... (주)한진, 수박 기프트카드 (주)한진은 14일 업계 최초로 농산물 구매와 배송이 결합된 함안수박 ‘기프트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기프트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안수박의 판매 증대를 위해 (주)한진, 농협, 함안군이 함께하는 CSV(사회기치창출) 활동의 일환이다. 함안수박 기프트카드는 구매 후 지갑 속에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사진제공 (주)한진

서울엔 수소택시, 창원엔 수소청소차

**현대차·산업부·지자체 MOU
‘공공 수소차’ 보급 기반 마련**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수소 택시, 나아가 수소 상용차(트럭) 보급을 확대한다. 서울에서는 작년 9월에 이어 수소 택시 10대가 추가돼 총 20대가 실증작업에 나선다. 창원시도 5톤(t) 수소 청소트럭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14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택시와 수소 청소트럭 보급 확대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다자간 협약을 통해 공공 부문 수소 택시와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반인을 상대로 수소전기차 경험을 확대해 수소 경제 지면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택시사업자 2곳을 선정, 수소 택시 10대를 시범운영

한다. 택시는 일반 차와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장거리를 달린다. 때문에 내구 성능이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소 택시를 내구한계까지 운행해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공급 장치, 열관리 장치 등 핵심부품의 성능을 실증 테스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와 산업부, 창원시는 수소 청소트럭 시범운영에도 협력한다. 먼저 창원시가 5t 수소 트럭 상용화 및 보급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수소 청소트럭 1대가 창원시 관내 쓰레기 수거 노선에 투입된다. 수소 청소트럭 충전을 위한 대용량 충전소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현대차와 부품 협력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해 개발된 차량으로 1회 충전으로 599km(현대차 자체시험/시속 60km 정속주행 기준)까지 운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에도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소차량과 승합차 등 서울시가 운행하는 상용차를 수소전기차로 대체기로 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CJ대한통운, 1분기 실적 ‘코로나 수혜’

**택배 물량 급증에 영업이익 29%↑
인도 등 해외 사업은 74억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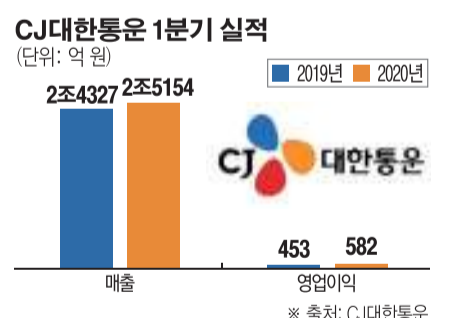
CJ대한통운이 언택트 트렌드화에 따른 택배 사업 성장으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분기 매출 2조 5154억 원, 영업이익 582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3.4%, 28.5% 올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택배 물량 증가와 전사적 수익성 제고 노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각 사업별 영향 등이 실적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택배사업에서는 매출 7279억 원, 영업이익 354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됐고, 매출 또한 26.5% 상승했다.

CL(계약 부문)에서는 매출 6395억 원, 영업이익 27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1% 상승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3.2% 감소했다. 주요 고객사 생산 차질로 인한 항만 물동량 및 수송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택배, CL부문은 선방했지만 글로벌, 건설 부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분기 글로벌 사업은 영업손실 7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매출 또한 2.6% 감소한 9958억 원에 머물렀다. 인도, 동남아 물동량이 급감한 데 따른 영향이다.

건설 사업의 매출, 영업이익은 각각 1521억 원, 32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리조트 영업 감소로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13%, 59% 줄어들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언택트 트렌드 부각에 따른 택배 물량 급증 및 E커머스 관련 물류 취급과 증가로 일부 사업 부문은 혜택을 받는다”며 “다만 인도, 동남아 등 일부 지역의 영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기아차 ‘그랜버드’ 페이스리프트

기아자동차는 신차급으로 대폭 변신한 고급 대형버스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Super Premium)’ 외관 렌더링(사진)을 공개하고 14일부터 사전계약에 나섰다.

전면부는 차량 상단의 마커램프와 하단의 헤드램프가 수직구조 형상으로 연결되고 차체와 앞면 유리 사이의 ‘V’ 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기아차는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의 실내를 80mm 높이고, 실내 상단 좌우폭을 120mm 확대해 국내 대형버스 최고의 공간감을 확보해 운전자와 탑승객의 실내 거주 환경을 개선했다. 가격은 △하이데커 2억~2억1400만 원 △스탠더드 데커 1억8000만~1억9400만 원에 책정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정수기 냉장고’ 3파전...삼성·LG에 위니아 가세

삼성, 필터 ‘셀프교체’ 장점
“문 열어줘”...LG 음성 인식
위니아, 필터 3년 무상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담채가 ‘정수기 냉장고’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LG전자는 꾸준히 출시해 온 얼음정수기 냉장고 신모델을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최근 7년 만에 정수기 냉장고를 내놨다. 여기에 위니아담채도 가세했다.

LG전자는 20일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는 ‘LG 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은 사용자가 가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인 LG 씽큐에 연결하면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냉장고 앞에서 “하이 열지!”라고 부른 후 “냉장고 문 열어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냉장고 문이 열린다. 또 사용자가 “냉수 설정해줘”나 “각얼음 설정해줘”라고 말하면 냉장고가 그에 맞는 기능을 설정한다.

이날 위니아담채도 ‘얼음정수기 프렌치 도어 냉장고’를 선보였다. 얼음정수기, 고

가전 3사 주력 제품 비교

		
SAMSUNG 양문형 정수기 냉장고	LG전자 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위니아담채 얼음정수기 프렌치도어 냉장고
259만 원 - 2300 리터 국내 최대 정수 용량 - 필터 탈부착 간편, 스테인리스 코크	540만 원 - 음성으로 냉장고 문 개폐 - 3년 필터, UV 나노 위생관리	300만 원대 - 얼음정수기, 고메스페이스 탑재 - 3년 무상 서비스

메스페이스(담채의 신선식품 보관을 위한 독립공간), 서랍식 냉동고 등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책임지기 위한 다양한 편리 기능이 적용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정수기를 탑재한 ‘양문형 정수기 냉장고’를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정수기 냉장고를 선보인 건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미국 등지에서 보편화된 정수기 냉장고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기존 제품 대비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수기 냉장고는 정수기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주방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커피머신, 에어프라이어 등 다양한

신주방 가전의 등장으로 주방공간이 좁아지면서 정수기 냉장고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커졌다.

과거 정수기 냉장고 필터 교체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의 편의성도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주기적 방문 관리 없이도 소비자가 간편하게 필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냉장고용 정수기로는 최대 정수 용

량인 2300 l를 확보해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하면 되며, 필터부는 손잡이를 살짝 돌려주면 탈부착이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됐다. 또 물이 나오는 코크(Cock) 부분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 탈부착도 가능해 세척을 하거나 삶아서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는 필터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케어솔루션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니저가 3개월마다 방문해 필터 교체는 물론 물이 흐르는 곳을 고온으로 살균하는 등 고객이 혼자 점검하기 힘든 부분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해준다.

위니아담채는 무상보증(3년) 기간에 연 2회 워터필터, 탈취제 교체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수기 냉장고의 자가 필터 교체가 가능해지면서 정수기도 관리·점검받아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또 정수기를 놓을 공간이 좁아지면서 주방 공간을 넓게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정수기 냉장고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바이탈뷰티 명작수
건강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수소모빌리티+쇼’ 예정대로 7월 개최

화상 연설 등 온라인 복합행사로
조직위 “경제활성화 신호탄 기대”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어 7월 1일로 예정된 올해 행사를 자질없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유중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HyNet) 대표이사, 신재형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등이 참석해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산업계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수소산업을 선점·주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수소모빌리티+쇼’가 경제 재활성화에 의미 있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수소모빌리티+쇼’ 기간에는 정부의 수소 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가 주도하는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수소용

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진행하는 수소 서포터스 발대식, 국제수소포럼, 수소산업 발전포럼 등의 행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직위는 아직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 대책 마련에 역량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전시장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시행해 무증상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검역·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관계자와 방문자들이 안심하고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열릴 국제 콘퍼런스에 해외 연사의 참석이 어려우면 화상 연설 등의 온·오프라인 복합형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가 우리 수소산업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해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소모빌리티+쇼’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연기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아시아나, 국제선 운항률 8%→17% 늘린다

내달 中·동남아 등 13개 노선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축소했던 미주, 동남아, 중국 등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6월부터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전 세계 입국 제한 조치 완화를 대비하고 침체됐던 항공시장 활력 회복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6월부터 국제선 13개 노선을 재개하고, 주간 운항 횟수를 57회 추가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력 노선인 중국 12개 노선을 6월부터 재개한다. 현재 중국은 여행 제한 조치로 운항 시기는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 준비를 통해 조치 완화 즉시 운항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 노선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을 각각 주 3회에서 주 7회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필리핀 마닐라를 각각 주 3회에서 주 4회로 운항 횟수를 늘린다. 싱가포르 노선도 여행 제한 조치 해제를 기대하며 주 3회 운항할 계획이다.

미주 노선의 경우 시애틀 노선을 운휴 77일 만에 재개한다. 시애틀 노선은 화물 수요 등을 고려해 운항을 우선 주 3회로 늘려 미주 노선 수요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럽 노선은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4회로 횟수를 늘려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일부 노선 운항 재개로 현재 계획 대비 8%에 머물러 있는 운항률을 17%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분명, 이기나긴 골목에는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얼어붙은 이 골목에서
당신의 어깨는 한없이 내려앉고
당신의 한숨은 끝없이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믿습니다
이 골목의 고비만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끝이 어디라도
신한은행은 당신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의 힘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
신한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이시기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관련 금융지원

- ▶ 피해 중소기업 보유 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 ▶ 피해기업 및 종업원, 코로나 19 확진자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
- ▶ 대구, 경북지역 비대면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개인고객)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운영

- ▶ 경영애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 ▶ 사업영위 관련 법률, 세무, 노무 분야 상담
- ▶ 서울 지역 총 3개 운영 중 (중부, 남부, 강남)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 ▶ 신한은행 거래 개인사업자 대상 무료 광고 지원
- ▶ 신한은행 영업점 내 디지털 전광판 / 포스터를 통한 광고 게시
- ▶ 전국 32개 영업점에서 시행 및 연내 확대 예정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상담신청은 신한은행 App '신한SOL'에서 메뉴 → 간편서비스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 신한SOHO성공지원센터의 경로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상단 QR 코드로 바로 접속 가능)

※금융지원 대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77-8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0-10391-1호 (유효기간 2020.04.10~2021.03.31)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형·생계형 나눠 집행해야”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중소 지원 GDP 대비 2.4% 그쳐
비대면 통합 지원 시스템 만들어
충분한 자금 신속하게 지원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하고, 생계형 지원은 재난지원 성격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열린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정화 중기정책학회장을 비롯해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



한정화(앞줄 왼쪽 네 번째) 중소기업정책학회장과 김기문(/ 다섯 번째) 중기중앙회장이 14일 열린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병현 중소기업연구원장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등 중소기업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성격을 구분해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금융지원을 구분해 생계형에 대해서는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소상공인을 재난 안전 취약계층으로 상정한 뒤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현재의 위기 환경을 △급격한 내수 경제 하강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한 이동 △실업을 확대해 자영업 시장 과당경쟁 우려 △정부지원금 등 외부 경제에 의존 가속화 등 4가지로 정리했다. 금융 지원에서는 △

신속 집행 △절차 간소화 △범국민적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은 금융지원에서 중요한 3가지를 △충분한 규모 △신속한 지원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성으로 요약했다.

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이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2.4%에 그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충분한 자금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신속한 금융지원에 관한 해외 사례를 들어 부연했다. 그는 “스위스의 경우 18조 원을 1주일 만에 중소기업에 지원했다”며 “한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0분 안에 돈이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이처럼 채널을 일원화하다 비대면 통합 지원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금융지원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소비·생산·소득 측면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며 경제가 급속히 위축된 상태인 만큼 대공황 이상의 경제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금융 원칙 제언을 △시설투자 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지원에 집중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조정 유도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돕는 브로커 업체 철저히 배제 및 사법 처리 등으로 요약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T, 세계 첫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공개

양자난수 생성, 해킹 원천 차단
‘갤럭시A 퀀텀’ 22일 공식 출시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조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QRNG)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출고가는 64만9000원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예약 판매를 거쳐 22일 공식 출시된다.

SK텔레콤은 ‘갤럭시 A 퀀텀’에 QRNG 칩셋을 탑재했다. QRNG 칩셋은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생성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이번 양자 암호 전용 단말기엔 가로 2.5mm, 세로 2.5mm의 칩셋 내부에서 CMOS 이미지센서가 LED 광원이 방출한 빛(광자)을 감지한다. 이때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센서 면적 안에 감지되는 광자 개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양자



SKT 회사사 IDQ(ID Quantique) 연구진이 ‘갤럭시 A 퀀텀’ 스마트폰과 양자난수생성(QRNG) 칩셋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의 무작위성을 이용해 난수를 추출하는 원리다.

갤럭시 A 퀀텀 구매 고객은 양자보안 기반의 △T아이디 인증 로그인 △SK페이 생체인증 보호 △블록체인 모바일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initial)’을 경험할 수 있다.

QRNG 칩셋이 제공하는 난수를 기반으로 3가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키를

생성함으로써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주고받을 때 암호화·복호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암호키가 필요하다.

갤럭시 A 퀀텀에서 T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1차 아이디 로그인 △2차 퀀텀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등 이중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아이디 로그인에 양자보안 기반의 OTP 인증이 추가돼 이용자의 계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모바일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에도 양자보안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이니셜에 각종 개인 증명서(출입증, 자격증, 졸업·성적증명서, 보험청구서류 등)를 저장할 때 ‘퀀텀 지갑’이 자동 생성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이니셜 앱과 발급 기관 간 인증 절차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월부터 사용 가능한 증명서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김유람 기자 hura@

전통시장 살리고 불우이웃 돕고 ‘장바구니’ 챙겨든 中소업체

“다들 모자 골라 보세요. 이 남색 모자 괜찮네. 엑스라지(XL) 사이즈 있어요? 이건 얼마예요? 국산인데 2만 8000원? 흰색도 한 번 써볼까. 흰색은 너무 희네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남대문시장 1층에 위치한 모자가게를 찾았다. 모자 서너 개를 써보고 구매도 했다. 앞서 방문한 만두가게에서 왕만두 하나를 해치운 뒤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하는 가운데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나섰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 협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첫 번째 방문지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회장과 만난 박 대표는 “남대문시장은 대한민국 전통시장 1호이자 국제시장으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보따리상이 대거 방문해온 곳이지만, 최근에는 하루 동안 외국인 10명이나 방문하는지 모르겠다”며 “중국에서 상품이 들어온다고 해도 매출이 ‘제로’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등 글로벌 무역이 다 끊긴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무역 사업을 하는 이들에 한해 국내 검사 결과로 외국에

서 격리를 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화를 마친 뒤 회장단은 남대문시장 내의 가게로 이동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은누리상품권을 통해 총 2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했다. 구입한 물품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 복지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며 “중기단체가 거만히 있을 수 없어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슬로건으로 ‘민생

중소기업단체 협의회, 남대문시장 찾아
복지시설 기증 위해 2000만원 물품 구입
착한소비 운동 등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

경제 CPR, 경제를 살리는 심폐소생 운동’을 제시했다. 심폐소생술을

의미하는 의학용어 ‘CPR’를 ‘소비촉진’(Consumption Promotion)과 ‘경영정상화’(Rebuild)로 재구성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응급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캠페인에는 △착한 소비자 운동 △국내 여행가기 운동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알리기 운동 등 소비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계 3대 운동이 포함됐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 △인식 개선 및 사기진작 지원 △분쟁·소송 지원 △대출금리 부담 완화 지원 등 4개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21대 국회에 중소기업 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와도 정책 소통 채널을 가동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엑셀,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매출 42% 증가... 흑자전환 성공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 엑셀이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엑셀은 14일 공시를 통해 2020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6억 원, 당기순이익은 12억 원을 올렸다.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14억 원, 순손실 11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별도 기준으로 엑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53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10억 원,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엑셀은 이 같은 실적은 사업 전 영역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매출액을 달성했고 지속 성장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레메디 ‘암치료 방사선 상용화’ 국책과제 선정
고집속 X선 발생 플랫폼 기술로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담당

방사선기기 전문기업 레메디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영상유도 방사선치료시스템 상용화 생태계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방사선치료시스템의 제조 기술을 확보, 인프라 구축 및 방사선치료시스템의 상용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기업이며 강원대 병원, 삼성서울병원, 은코소프트 그리고 레메디가 참여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규모는 68억4000만 원이다. 이중 레메디는 42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할당받았다.

레메디는 자사가 보유한 고집속 X선 발생 기술(HiFoX Technology) 플랫폼을 기반으로 축적된 방사선 의료기기 연구개발 역량을 통해 암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시제품 제작, 전체 방사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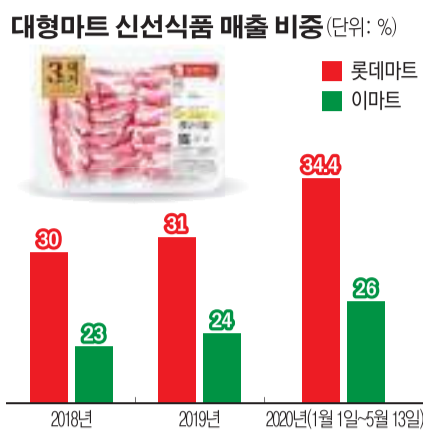
료시스템의 성능평가를 담당할 예정이다. 레메디는 본 과제를 통해 방사선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상용화를 국내 최초로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사선 치료용 선형가속기는 암치료를 위한 초정밀 고난도의 치료 성능, 영상 및 SW가 융합된 현대 최첨단 의공학의 집성체로 알려져 있다. 고가 장비의 경우 200억 원에 육박하는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술 분야다. 높은 기술개발 난이도와 함께 치료용 방사선 의료기기 전문가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실제 병원 임상 수요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방사선 치료용 선형가속기 보급률은 30% 수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재훈 기자 yes@

“소비자 눈높이 맞춰라” 유통가 화두는 ‘超신선’

경매 시장 뛰어든 롯데마트
도축서 판매까지 ‘3일 돼지’
홈플러스 산지서 자른 수박
SSG 자체 유통 ‘모두의 쌀’
온·오프라인 신선식품 전략



신선식품이 유통업계의 생존 키워드 상품으로 새삼 확인됐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적인 만큼 온라인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신선식품 강화를 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소포를 경험하고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며 오프라인 유통업체 최후의 보루였던 신선식품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 분야로 온라인 신선식품 사업을 꼽았고, 이마트는 코로나19에도 올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 배경엔 신선식품을 강화한 SSG닷컴의 성장이 있었다.

이에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유통업체는 너도나도 신선식품을 생존전략으로 삼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수확·도축·어획부터 유통·판매까지 도맡아 직접 상품을 관리해 신선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초(超)신선·극(極)신선을 내세운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경매에 직접 참여해 구매부터 가공·판매까지 도맡은 ‘3일 돼지’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축부터 매장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3일이 걸린다는 의미를 담아 상품명에 ‘3일 돼지’로 정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의 육즙이 덜 빠지도록 도축부터 고객이 먹기 전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목했다. 우선 직접 구매 대상은 1등급 이상 압퇴지로 한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축 3일 이내 매장에 진열·판매가 이뤄지며, 최고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도축 8일까지인 매장에서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육가공업체를 통해 돼지고기를 납품받으면 도축 이후 매장에 진열되기까지 7일 정도 소요된다.

‘3일 돼지’는 구매 후 1차 가공을 하고 다음 날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에 입고해 도축 후 3일째 매장에 진열된다. 이날 말 출시 예정인 ‘3일 돼지’는 하루 한정 물량으로 서울 일부 점포와 온라인에서 판매하게 된다. 이후 차례로 공급을 확대해 연내 롯데마트 전 점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마트 박종호 신선 부문장은 “돼지고기 직접 경매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맛 좋은 육류’ 개발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새벽에 수확한 딸기를 그날 바로 판매하는 방식을 4월에 도입했다. 보통 점포에 들어오기까지 2일가량 걸리지만, ‘근거리 매칭’이라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도입해 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 농가별 근 거리에 있는 이마트 점포에 직접 배송된다. 수확 후 반나절 만에 가장 신선한 상태로 점포에 입고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마트 측은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조건 당일 수확한 상품을 판매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짧아진 물류동선과 간소화 포장으로 가격 또한 낮췄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조각 수박의 신선도를 높였다. 조각 수박은 온전한 상태의 수박을 각 매장에서 자른 후 무게에 따라 가격을 측정 후 랩으로 싸서 판매했던 만큼 위생과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함안, 익산, 논산 등 주요 산지에서 수확한 수박을 HACCP(해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작업장에서 자르고 포장작업을 진행한 후 콜드체인시스템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점포에 진열해 판매한다. 과즙이 흘러 포장에 끈적거리지 않도록 전용 용기에 담은 후 압축 필름으로 밀봉해 위생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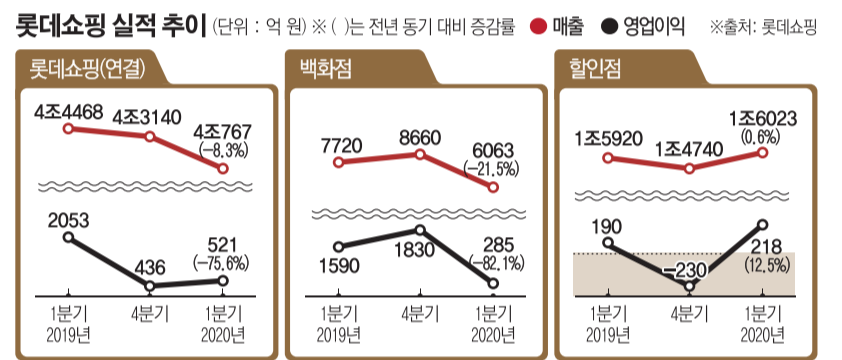
홈플러스 측은 “해설 인증 작업장에서 포장 후 들여와 판매하는 만큼 위생적으로 수박을 즐길 수 있고, 온라인 주문 시에도 위생 문제나 과즙이 흘러내리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박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체도 신선 경쟁이 치열하다. SSG닷컴은 새만금 지역 농가와 계약을 맺고 수매부터 판매까지 맡는 ‘자체 유통 쌀’인 ‘모두의 쌀’을 출시했다. 지난해부터 SSG닷컴이 꾸준히 추구해 온 ‘극신선’ 경쟁력 제고의 일환이다.

이 쌀은 SSG닷컴이 협력사인 ‘새만금농산농업회사법인’과 함께 해당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직접 수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농가에서 생산된 쌀은 도정장을 거쳐 곧바로 SSG닷컴 온라인스토어 ‘네오’로 입고된다. 도정 후 3일이 지난 상품은 입고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단계가 대폭 줄면서 가격경쟁력은 물론 신선도까지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박미선 기자 only@



女心 홀리는 명품 주얼리 현대백화점이 판교점 1층 열린광장에서 프랑스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부셰론(BOUCHERON)' 팝업 부티크를 열고 다양한 한정판 상품을 31일까지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팝업에는 럭셔리 주얼리 제작 과정과 제품을 착용해 볼 수 있는 스타일링 룸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롯데 ‘코로나 쇼크’ 현실화 1분기 영업익 75.6% 추락

집객시설 기피 심리 확대
백화점 매출 21.5% 하락
식품 소비↑ 할인점 선방

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및 신학기 시즌 연기로 정보통신 부문 등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6%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롯데쇼핑이 크게 한 대 얻어맞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형 집객시설 기피와 소비심리 악화로 백화점과 컬처웍스(영화관) 등이 특히 부진했다. 다만 식료품 대량 소비가 늘며 대형마트가 선전했고, 롯데슈퍼도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7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내렸다.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75.6% 추락했다.

백화점은 606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1.5% 내렸고, 영업이익은 285억 원으로 82.1% 떨어졌다.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패션 상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해 국내 기존점 매출은 21.8% 떨어졌다.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롯데마트는 선방했다. 할인점 매출은 1조6023억 원으로 0.6% 올랐고, 영업이익은 218억 원으로 12.5% 올랐다. 국내 기존점 매출은 -6.5% 였지만, 판매비가 줄며 영업이익은 되려 10.6% 늘었다. 또한 해외 점포가 성장해 기존점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14.2% 증가했다.

근거리 소포장이 늘며 슈퍼 사업의 활약이 눈부셨다. 1분기 영업손실은 -63억 원을 기록했으나 판매비 절감으로 전년 대비 112억 원 적자를 개선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매출 9253억 원과 영업이익 195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

나19 확산에 따라 TV와 PC 수요 증가와 연말까지 진행 예정인 고효율 가진 환급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촉진, 온라인 채널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은 매출액 2690억 원과 영업이익 367억 원을 기록했다. 헬스케어 및 감염 예방 상품과 프리미엄 상품 강화 등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 전년 대비 16.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방송수수료 증가분이 134억 원 반영됐지만, 매출이 늘면서 4분기에 이어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했다.

컬처웍스는 매출 1025억 원과 영업손실 344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영화관 일부점 휴관, 관객수 감소, 신작 연기 등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49.0% 감소했고, 판매비 절감의 한계로 344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효율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 감소 시 세이프 시네마 포지셔닝을 통해 영화관 방문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플랫폼 롯데온을 활용해 이커머스 영업환경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올해는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점포의 수익성 기준으로 추가적인 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기업	약물	기준 적응증	승인 시기	대상 환자	실시기관	임상시험 기간
부광약품	레보비르	B형 간염	4월 14일	중등증	고려대구로병원 등 8곳	2020년 4~8월
엔지켐생명과학	EC-18	-	5월 12일	폐렴 환자	충북대병원	2020년 5월~2022년 5월
신풍제약	피라맥스	말라리아	5월 13일	경증·중등증	세브란스병원 등 4곳	2020년 6월~2021년 6월

임상2상 추가 승인...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가속

부광약품·엔지켐생명 이어 신풍제약 ‘피라맥스’ 합류

국내 제약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식약처는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에 대한 코로나19 임상 2상을 전날 승인했다. 부광약품과 엔지켐생명과학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기업의 3번째 임상 승인 소식이다.

이번 임상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되며, 116명의 환자를 모집한다.

피라맥스는 2011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말라리아 치료제다. 신풍제약은 감염세포 시험에서 피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라리딘 인산염과 알테슈네이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앞서 부광약품이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14일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한 달여 만인 이달 12일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에 대한 임상 2상이 승인돼 속도 면에서 부광약품이 가장 앞서고 있다.

레보비르 임상 2상은 고려대 구로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 8곳에서 순항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환자 등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월 중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보비르는 전 세계 4번째로 출시된 B형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다. 이미 오랜 처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얻으면 경쟁력 있는 약물로 급부상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 2상을 마치고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획득하면 바로 환자들에게 사용 가능하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부광약품은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상운동증 개선제 ‘JM 010’ 등 신약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8월께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첫 사례인 레보비르의 임상 결과 윤곽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은 선천성 면역기능을 조절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는 기전이다. 레보비르나 피라맥스와 달리, 아직 시판되지 않은 신약후보물질이다.

이번에 승인된 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성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충북대병원에서 한 곳에서만 진행된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임상 사이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동학개미, 이번엔 글로벌 증시 하락 '베팅'

코로나 재확산 경기침체 우려에 '인버스 레버리지ETF' 투자 몰려 일주일간 1667억... 순매수 3위 지수 상승 추종 상품은 '팔자'

최근 일주일(6~13일) 개인투자자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현황 (달러 원화 환산, 14일 환율 기준)

상장국가	추종지수	ETF명	순매수액
한국	코스피200 선물지수	KODEX200선물인버스2X	1667억 원
	코스닥150 선물지수	KODEX인버스	338억 원
	코스닥150 선물지수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702억 원
미국	S&P500 지수	프로셰어즈 트러스트 숏 S&P500	2948억 달러 (약 362억 원)



* 출처: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주식 하락장에 베팅하고 있다.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국내외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적극 사들이고 있다. 3월 폭락 이후 반등했던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마찰 등 새로운 난관에 놓이면서 증시 비관론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13일)간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1667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순매수액 상

위 종목 중 삼성전자(5754억 원), LG화학(2676억 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KODEX200선물인버스2X는 소위 '급버스'로 통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정도에서 2배가량 수익률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개인은 이 밖에도 'KODEX 코스닥150 선물인버스' (702억 원)와 'KODEX인버

스' (338억 원)를 사들였다. 반면 지수 상승을 추종하는 'KODEX코스닥150'과 'KODEX레버리지'는 각각 1817억 원어치, 1358억 원어치 팔았다.

해외주식 직구도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한 주(6~13일)간 미 증시에 상장된 '프로셰어즈 트러스트 쇼트 S&P500' (ProShares Short S&P500)을 2947억

6935달러(약 362억 원)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수혜주인 미국 장난감 제조사 '해즈브로'(Hasbro)에 이어 순매수 상위 종목 2위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와 미 증시는 3월 폭락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증가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기록한 직전 고점(1947.56)을 넘어서지 못하고 1900선 내외에서 등락 중이다. S&P500지수도 같은 날 직전 고점(2939.51)을 기록한 뒤 2800선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글로벌 증시 흐름을 결정하는 미 증시가 힘을 못 쓰면서 개미의 하락장 베팅 성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 증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선부른 경제 봉쇄 완화로 인한 코로나 2차 유행 가능성과 코로나 책임 공방

에 따른 미·중 무역 마찰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국내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에 더해 최근 이태원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깊어진 상황이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의 선부른 경제 봉쇄 완화는 V자 경기 회복 가능성보다 2차 충격에 따른 W자 경기 궤적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백신이 개발되기 전 상황에서는 U자형 경기 회복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가 최악을 지났을 수 있고 하반기 정상화 경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기업 매출 및 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하향 조정될 전망"이라며 "국내의 증시도 여기에 눈높이를 맞춰 가면서 하향 조정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공매도 금지 2개월... 주가 ↑ · 대차잔고 ↓

外人 '셀코리아' 언제까지...

셀트리온 잔고 비중 2.3%P 줄어 코스닥 시장도 정책 효과 '뚜렷'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다. 공매도 비중이 높던 종목들의 잔고 비중이 일제히 줄고 대차잔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금지 시행 직전인 3월13일 9.35%에서 5월8일 기준 6.98%로 2.37%P 내려갔다. 반면 주가는 17만500원에서 21만1000원으로 23.8% 올랐다.

롯데관광개발 역시 같은 기간 공매도잔고 비중이 7.28%에서 6.95%로 0.33%P 떨어졌지만 주가는 26.6%나 상승했다.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던 코스닥시장 전체로 봐도 이런 양상은 뚜렷

하다. 같은 기간 헬릭스미스는 13.59%에서 12.08%로 1.52%P 줄었고 에이치엘비도 12.20%에서 10.43%로 1.77%P 감소했다. 반면 주가는 각각 35.0%, 30.5% 상승했다.

이밖에 케이엠더블유(-1.52%P), 신라젠(0.52%P), 펄어비스(-3.72%P), 에이치엘비생명과학(-2.02%P) 등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 비중이 일제히 감소했다. 이들 종목 역시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39.7%까지 주가가 올랐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주가 하락이 본격화되기 전 시점인 2월 7일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3월 15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3월 말부터 각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도 공매도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주식 대차잔고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3월 73조 원대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대차잔고는 전날 기준으로 57조 6149억 원까지 줄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대차잔고는 56조371억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로 단기적으로 특정종목의 상황매수가 기대되는 만큼 지수보다는 개별종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수하락 리스크 제거가 아닌, 현재 공매도 잔고가 높은 특정 개별 종목에 국한한 단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외국인 '팔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장사 실적 부진과 달러 약세,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13조704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순매수를 기록한 날은 단 4거래일뿐이다. 3월 13일의 경우 하루 동안 1조1650억 원을 매도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771.44에서 1940.42(9.53%)로 빠르게 회복했지만,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좀처럼 2000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 △신용국(EM) 펀드 자금 유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달러 약세 등을 꼽는다. 해당 조건들이 해결돼야 외국인의 매수 전환과 함께 지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면서 1분기 코스피 추정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27% 감소한 23조8335억 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한국이 속한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도 3월 이후 현재 1193.70원에서 1228.30원으로 2.89% 급등했다.

하인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식 시장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하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가 반등을 시작했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실적 컨센서스와 달러 약세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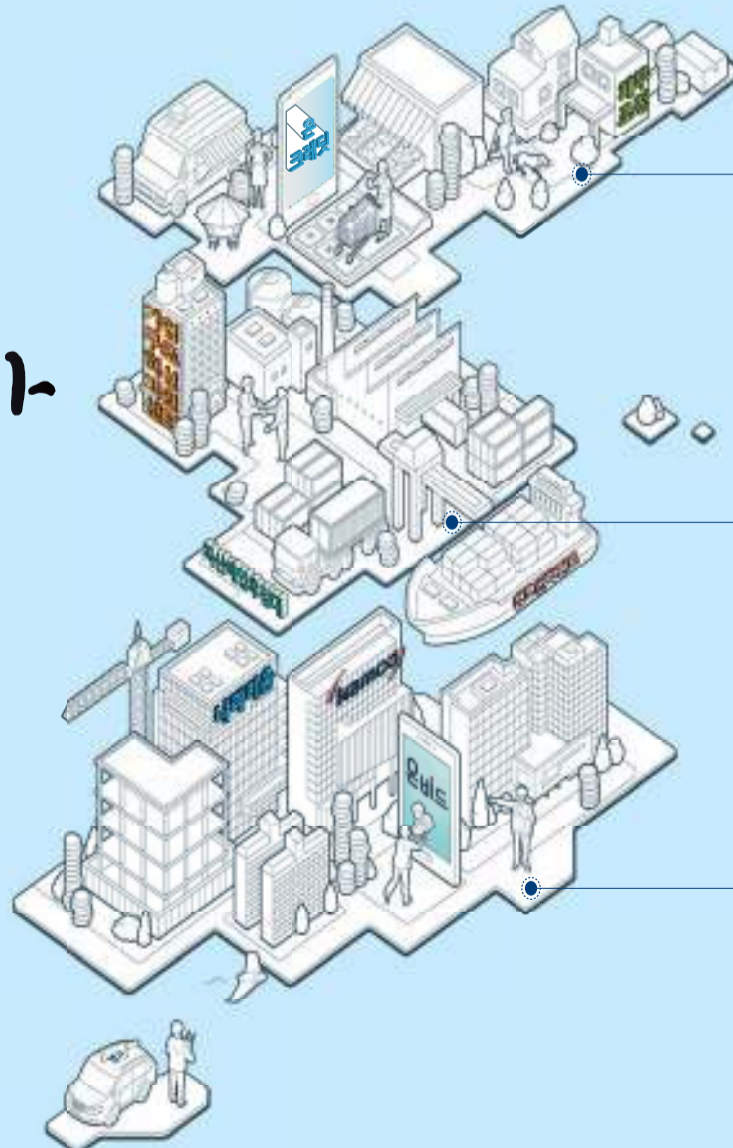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최근 바이오 신사업 계획 밝힌 코스닥 상장사

기업명	진출하는 바이오 신사업
두울산업	캐나다 신약 전문기업 '온코퀘스트' 인수
상지카일름	진단키트 업체 에이스바이오메드 지분 인수
케이피에스	신생 바이오 제약사 박싱크 유상증자 참여, 최대주주 등극
드래곤플라이	재생의학 및 면역항암제 기업 티바이오스에 전략적 투자
브레인코넵츠	신약개발 기업 메디프론 인수
중앙오션	신약전문 바이오기업 메릭스큐어메드 인수 추진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바이오' 잭팟 터지자 상장사 너도나도 "진출"

코로나19 사태에 세계 관심 늘어
두울산업·케이피에스·중앙오션 등
지분 매입·전략적 투자 단행 나서
"기존 사업 무관한 재무 악영향"

전략적 투자나 타 기업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에 진출하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른바 'K-바이오'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사업과 무관한 바이오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을 경우 오히려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사업 진출 능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기업 두울산업은 22일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로 변경하며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다. 3월 캐나다 바이오신약 업체 '온코퀘스트'(OncoQuest) 지분 21.17%를 인수하며 신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온코퀘스트는 2015년 캐나다 상장사 퀘스트파마텍에서 분할한 기업으로, 현재 난소암·췌장암·유방암 치료제를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다. 회사 측은 "자산 양수를 통해 온코퀘스트의 특허, 지식재산권, 주요 계약 등 무형자산을 취득했고, 이번 주총을 통해 바이오 전문가들을 경영진으로 영입해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상지카일름은 최근 전환사채(CB) 전환과 지분 인수를 통해 진단키트 업체 에이스바이오메드 최대주주가 됐다. 100억 원 규모 CB를 납입 후 즉시 전량 주식 전환했고, 지분 10.9%(115만4063주)는 구주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에이스바이오메드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치를 이용해 50분 만에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유전자 진단키트(Palm PCR COVID-19 Fast Real-time RT-PCR Kit)를 개발한 기업이다.

이밖에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케이피에스, 게임 기업 드래곤플라이, 콘텐츠 기업 브레인코넵츠, 조선기자재 기업 중앙오션 등도 바이오기업 지분을 취득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섹터에 투자심리가 몰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RX 헬스케어 지수는 전일 기준 한 달 새 10.14% 오르며 3476.6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1월 고점(2905.58)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해 실적이 악화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라며 "진단 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타 섹터와는 달리 오히려 코로나19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사업 진출 능력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사업과 무관한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을 경우 오히려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오 신사업 진출을 밝힌 코스닥 상장사 중 본업 실적 부진이나 상장폐지 이슈 등으로 기업 존폐에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중입자암치료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며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코션바이오는 자금 조달에 연이어 실패하며 대량 반대매매 사태까지 맞았고, 결국 지난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아든 상태다. 노우리 기자 we1228@

bithumb 빙셈

www.bithumb.com

빙셈 지수 (2020년 5월 14일 17:00, KST)

종류	전일 대비	6개월 대비
비트코인 가격	790,000원 (7.3%▲)	1,831,533원 (18.8%▲)
이더리움 가격	12,600원 (5.5%▲)	-67,413원 (21.7%▼)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91,200	8,300 (2.9%▲)	모네로	75,350	-350 (0.5%▼)
리플	245	6 (2.5%▲)	비트코인골드	11,170	390 (3.6%▲)
라이트코인	52,250	1,150 (2.3%▲)	이더리움 클래식	7,565	215 (2.9%▲)
대시	89,850	1,400 (1.6%▲)	퀀텀	1,807	30 (1.7%▲)

작년 지분법손익 개선... 올 1분기 114억 흑자

상장사 재무 분석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지분법손익에서 벗어났다. 과거 손실 규모가 컸던 관계사의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영향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지난해 지분법이익은 39억 원이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1년 전 10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꽤 큰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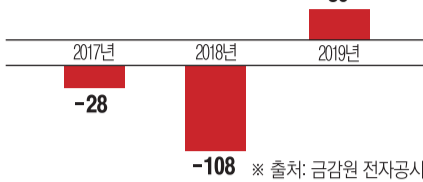
CJ대한통운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8억 원과 108억 원의 지분법 손실을 입었다. 특히 2018년 손실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천북항별크터미널의 손실 때문이다. 당시 인천북항별크터미널에서만 128억 원의 지분법손실이 인식됐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 기준 지분 28%를 보유한 이곳은 해마다 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장부가액은 현재 '제로'다.

회계상 장부가액은 마이너스로 표기될

CJ대한통운 지분법손익

(단위: 억 원)



인천북항별크터미널 손실 커져 관계사 '지분법 적용 중지' 추가

수 없다. 때문에 지난해 지분법 적용이 중지됐고, CJ대한통운의 지분법손익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전까지 CJ대한통운에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관계사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과 군장신항만 둘이었으나, 이번에 세 곳으로 늘게 됐다.

향후 인천터미널이 순이익을 기록하고, 그 규모가 지분법 적용 기간 발생한 손실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지분법이 적용된다.

큰 손실을 안겼던 관계사가 지분법 대상에서 제외되자 CJ대한통운의 지분법손익

도 자연스럽게 개선됐다.

이외에도 컨테이너운송업을 맡고 있는 중국 'SHANGHAI INCHON INTERNATIONAL FERRY'의 지분법이익이 2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19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싱가포르 'CJ INTERNATIONAL ASIA'가 12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등 다른 관계사들의 개선도 모기업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지난해 CJ대한통운은 지분법이익의 개선에도 순이익은 509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23.59% 감소했다. 대손상각비와 무형자산 처분손실 등 기타비용이 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2.97%, 26.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실적의 단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날 발표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 28.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4억 원 흑자 전환했다.

고대영 기자 kodaee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COVER STORY 바이러스의 진실

- PART1. 코로나19로 붉은 불에 드리고 싶은 말
- PART2. 바이러스를 둘러싼 19가지 궁금증
-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 PART4. 바이러스 퇴치, 면역력이 답이다
- PART5. 허구가 만들어진 '제2의 바이러스'

신라왕가 만난 사랑

- 높은 소년 가수 이광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 우리 노래의 깊이를 잇는 국악인 김명림 대한민국의 소리 거문고기 위한 여정
- 주얼리계 실과 스토리를 새겨 넣다 해외에서 더 빛나는 보석 디자이너 김정희

더불어 숲
증인수목원
자연의 품안에서
자연의 품안에서
자연의 품안에서

고수열전 삶을 통해 긍정 못할 게 없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다. 그 어떤 권능에도 휘둘러거나 괴리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다.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쉽다. 때마침 스승이 보이고 뒤따라 오는 세계에 갇히는 게 사람이다.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위안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려는 게 사람이다. 도둑이 표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나는 누구인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목호동대마을의 추억 앨범 '논골담길'

시집 '목호를 읽고' 막걸리를 안 마실 수 없다는 산배의 SNS 글을 보고, 기억 속 목호를 떠올렸다. 목호동대마을의 비좁고 기이한 골목 골에서 마주했던 김푸른 바다, 슬레이트집 담벼락에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목호동대 마을 안에서 숨겨져 감춰졌던 목호의 밤 풍경들, 유난히 목호에 끌리는 건, 왜일까. 좋은 건 이유가 없다더니 목호가 그렇다.

시니어 반상
휴머이드 사찰음식+ 영양 만점 달걀로 채운 불소풍 도시락

투자 고수의 놀자
김혜영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 노후 자산관리 "볼-게 보고, 갈-게 가라"

생생 부릉산 현장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서동팔달' 고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혼용이 볼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경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1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안전진단 통과’ 성산시영 호가 수천만원 ‘깡충’

‘3710가구’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4년 만에 합격
집주인들 내놔던 매물 거둬들여
재건축 갈 길 멀어 선부른 투자 금물



서울 강북 재건축 대어(大魚)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몸값이 최근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자 집주인들은 너도나도 시장에 내놔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 단지 매물은 아예 씨가 말랐다. 이 아파트 인근에서 1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시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아파트는 최근 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1986년 지어진 이 단지는 올해 준공 35년 차로 올해 초 정밀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약 4개월간 검사를 받은 성산시영아파트는 등급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들면서 재건축 첫 관문을 완전히 넘게 됐다.

성산시영아파트는 총 3710가구 규모로 강북권에선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월드컵경기장역 등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인 데다 월드컵공원과 한강이 가까워 입지 면에서 ‘강북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성산시영아파트의 이번 정밀안전

진단 통과는 최근 정비업계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18년 정부가 구조 부문 가중치를 늘리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는 등의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을 통과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실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조치 이후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이 확정된 곳은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한 곳뿐이다. 201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성산시영아파트 역시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정체해오다

지난해에서야 안전진단 예치금을 납부했다.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4년 만에 받아

든 합격 소식에 이 아파트 단지 매물은 이미 실종된 상태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 소식에 집주인들이 내놔던 매물을 순식간에 모두 거둬들였다”며 “그렇지 않아도 없던 매물이 더 귀해졌다”고 전했다.

성산시영아파트 전용면적 59㎡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최고 10억 원 선이다. 이 아파트는 1월 9억 5500만 원까지 거래가가 올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지난달 8억7500만 원까지 미끄러졌다. 안전진단 최종 통과 직전까지 호가는 9억 3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주 들어 호가는 9억7000만~10억 원으로 꺾뚝 뛰어 올랐다. 지난달 7억8000만 원에 실거래된 전용 50㎡형도 현재는 9억 원을 호가한다.

일각에서는 성산시영아파트가 매머드급 단지인 데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에서도 역세권 위치에 위치한 노른자 중 노른자 단지인 만큼 현재 강북지역 대장주 아파트인 ‘마래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선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제 막 안전진단을 마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여서 새 아파트로서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갈 길도 멀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며 “새 아파트 입주까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만큼 현재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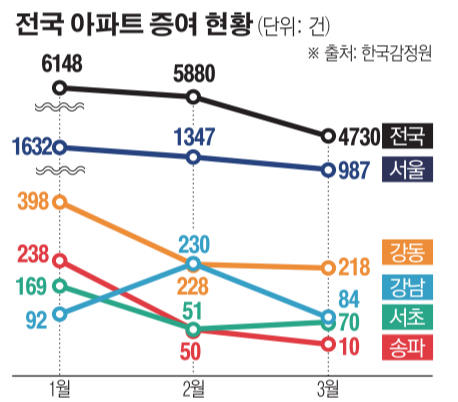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종부세·양도세 증과 부담에...

강남4구 아파트 증여 눈에 띄네

1분기 1838건으로 서울 절반 차지
편법 조사 불구 전국 매달 5000건↑



정부의 부동산 편법 증여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아파트 증여가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에서 매달 5000여 건에 달한다. 서울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증여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증여 건수가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양도세 증과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1만6758건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5600건에 달하는 규모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3966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매달 1300건이 넘는 수치다. 전체 증여 거래에서는 23.6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자녀 등 가족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에서는 1분기 406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송파구는 298

건, 서초구는 29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4구로 편입된 강동구에서는 844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기존 강남3구 대비 상대적으로 늦게 집값이 솟구치면서 현재 증여가 가장 활발한 곳이 됐다.

세금 부담을 단순 비교하면 양도세보다 증여세액이 크지만, 지금까지 ‘똥뽕한 한 채’가 각광받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증여 선택에 무게가 기운다. 세대 분리한 가족에게 집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도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증여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테니켈(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 3년 전 분양가 공급

대림산업, 20일 신청·28일 추첨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주상복합아파트)의 3가구가 3년 전 분양가로 새 주인을 찾는다.

대림산업은 2017년 분양 당시 청약 부적격 당점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3가구에 대해 이달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에 총 280가구(전용면적 91~273㎡) 규모다. 입주는 12월 예정이다. 공급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사진제공 대림산업

면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가 공급은 전용면적 97㎡B형과 159㎡A형, 198㎡형 3개다. 분양가는 97㎡B형 17억4100만 원, 159㎡A형 30억4200만 원, 198㎡형 37억 5800만 원이다. 3년 전 공급 당시 분양가와 같다. 공급 신청은 20일 진행된다. 당첨자는 28일 추첨을 통해 뽑는다.

정용욱 기자 dragon@

檢, 하이틴으로 경영진 집유에 항소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 박태영 부사장 1심서 징역형

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틴으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틴으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틴으로 회장의 장남

이다. 김인규 대표이사과 김창규 상무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틴으로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엔티를 거래 과정에 끼여 넣는 방식으로 일명 ‘통행세’ 등을 걷어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하이틴으로 인력지원(5억 원 상당),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눔코일 통행세(8억5000만 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 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엔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통행세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의혹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와 기소에 이르렀다.

한편 하이틴으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월 박 회장이 박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서영이엔티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면서도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도 부분은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장미의 계절 ‘생축 속 거리두기’로 일상 복귀가 차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4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장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장미를 관람하며 계절의 여왕 5월을 즐기고 있다. 에버랜드는 15일부터 한 달여간 약 2만㎡ 규모의 장미원에 720종 300만 송이의 장미가 만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5조 원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 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이’ 우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공개 정부, 그동안 정보 비밀로 진행사항도 여전히 베일 속 민변, 국제청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일부승소 확정

론스타 ISD 일지	
2003년	-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2007년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체결 - 금융당국 승인 지연으로 무산
2011년	- 대법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2012년	- 론스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매각 - ISD 중재의항서 제출 및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한국정부 제소
2016년	- 양측 최종 변론 후 ISD 4차 심리기일 종료
2019년	- ISD 중재재판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 사임

14일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론스타 부과 세액 등 공개 판결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금액 중 일부의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와 연관이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겼지만 론스타는 매각이 지연되면서 매각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를 걸면서 46억 달러(약 5조3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구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다만 5조 원이 넘는 금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에 민변 등은 정부의 ‘깜깜이 대응’에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일

각에서는 론스타 측이 피해액을 과다 산정해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가 청구한 피해액 중 국제청이 부과한 세금으로 인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상세 내역과 ISD 진행 상황, 정부 대응 등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민변이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부분은 기각됐다.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 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3월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사기치고 도주한 박중원 징역 3년 (두산 4세)

법원, 불출석 상태로 선고 실형에도 법정구속 안 해

두산가(家) 4세 박중원(42) 씨가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씨가 선고공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자 그가 없는 상태로 판결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에게서 4억 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줘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박 씨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또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인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출

근 출석했지만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000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12일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거액이며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씨가 법정 출석하지 않아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용 기자 deep@

고3 학부모 ‘온라인 개학’ 불만… “교육 편차 생겨”

만족도 37.5%에 그쳐 초등생 부모 66.5% ‘만족’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학년별 학부모의 온도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과반수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만족도는 30%대에 머물렀다.

14일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 10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61.2%)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만족도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66.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45.1%,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37.5%만 만족한다고 했다.

온라인 개학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27.7%)’,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5.6%)’ 순이었다.

이외에 ‘저학년·맞벌이 학부모 부담 과중’, ‘학교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 편차

발생’, ‘서버·접속 불안정’, ‘과도한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의 의견이 있었다.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낸 의견은 ‘교육부 또는 각 교육청이 주관해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학년별 공통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 한계가 있지만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당 부처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 1년 감형

재판부 “강요죄, 무죄로 판단”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사진·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

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에 따라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용 기자 deep@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發 코로나19 확산에... AI기반 콜서비스 서울시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

서대문 소재 주점서 추가 확진 방문자 파악해 전원 자가격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 3일과 5일 서대문구 소재 주점(다모토리5)을 방문한 외국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비슷한 시기 해당 주점을 방문한 서울 거주 20대 남성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다모토리5에 방문한 손님 명단과 카드결제 내역을 통해 199명을 파악해 검사했고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일 마포구 소재 두 개 주점(한

신포차·1943포차)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12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동행한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입국이나 이태원 방문 경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 국장은 “접촉자 10명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방문자 명단, 카드 이력 등을 통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차 감염 확산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 국장은 “홍대 주점의 경우 일행이 감염된 것이어서 해당 주점이 감염원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있다”며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가 대거 다녀간 낙원동 일대도 여러 가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자치구 8곳에 시 즉각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와 임시폐쇄조치를 완료했다.

자발적 검사를 위해 기지국 접속자 1만 3405명에게 검사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콜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을 확보했으며 전날 2500명의 명단을 추가로 입수했다.

향후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 6곳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전표, 기지국 접속자 등 정보를 추가 조사해 검사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처음 나온 이후 현재 확진자는 72명(서울시 기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만143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난 714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잠실한강 수영장, 모래 깔린 물놀이장으로

콘크리트 견고 자연경관 회복

1990년 조성된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이 모래사장과 다양한 꽃·나무로 둘러싸인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잠실한강공원의 노후한 수영장장과 운동장, 임시 주차장까지 아우르는 이 일대를 대대적으로 새로 단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엔 다양한 수심으로 구성해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1만4000㎡ 규모의 물놀이장이 생긴다. 물놀이장과 한강 사이에 모래사장이 조성돼 마치 강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놀이장 내 모든 마감재는 환경인증 받은 친환경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다.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연경관이 회복된다. 실개천이 조성돼 강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실개천 주변으로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가득한 초화원이 생긴다. 가족 피크닉장, 숲속 쉼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조감도.

터도 만들어 여름에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6월 초 당선작을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 2022년 6월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새 단장을 준비하기 위해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은 올여름부터 폐장된다. 올여름에는 6개 한강공원 수영장 중 3개소(뚝섬·광나루·여의도)와 물놀이장 2개소(난지·양화)만 운영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성동구 보유 상가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서울 성동구가 공유재산인 ‘성동안심상가(사진)’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성동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31개 입주 업체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책을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림 입자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한다.

인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호~7호점



의 입차 소상공인 31개 업체다. 인하 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이미 2020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 인하분을 5~6월 중에 환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구로구, 사회복지시설 문 열기 전 방역체계 마련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관 중인 사회복지시설 재운영에 앞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체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로구는 먼저 관내 복지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구로종합

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공동종합사회복지관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은수어르신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다. 복지관 1층 출입구에 설치해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진행한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기운영)을 제외한 복지관 6개소에는 회원관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복지관 방문객의 명단, 출입시간,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온종일돌봄센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 320개소에 방역소독기와 소독약품을 지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20-571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용답동 12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답동 121번지 일원	-	증) 8,737.0	8,737.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①	용답동 121번지 일원	8,737.0	○ 성동구 용답동 신답역세권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737.0	-	8,737.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995.0	감) 1,305.7	689.3	7.9
	제3종일반주거지역	6,742.0	감) 6,742.0	-	-
	준주거지역	-	증) 8,047.7	8,047.7	92.1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준주거지역	1,305.7	○ 신답역세권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742.0	○ 신답역세권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용도지구: 해당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주거정보과(고산로 270, 본관 11층, 전화 02-2286-6572)
4. 열람기간: 2020.05.15 ~ 2020.05.29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성장년, 피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매력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건성사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재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매뉴얼과 다르다던데, 선배들은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매뉴얼 말고 실질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예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된 기술서이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배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종별이 하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맘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깝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리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관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된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94면 | 148쪽 | 국문판 / 12,000원

“엄마에서 ‘나’로 돌아오기,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죠”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재출간한 한 성희 원장



한성희 원장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에 어설픈 충고나 설익은 위로가 아닌, 정신분석 전문의로서의 날카로운 통찰과 워킹맘으로 살아오며 쌓은 내용을 담고자 했다.

2013년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통해 수많은 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었던 한성희(韓星姬)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딸의 결혼을 앞둔 한 엄마이자, 정신과 전문의로서 건넨 진정 어린 조언이 큰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잠시 절판됐던 도서가 최근 다시 출간됐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시간의 흐름 때문일까? 표지에 그려진 딸의 모습은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다. 당시 50대였던 한 원장 또한 어느덧 60대에 이르렀다. 딸 못지않은 인생의 전환점을 지났을 터. 그녀는 “잘 성장하고 있다”며 담담히 안부를 들려줬다.

하나뿐인 딸아이의 결혼, 그것은 한 원장이 책을 펴낸 계기가자 크나큰 성장통을 앓게 한 사건이었다. 자녀의 독립이 시원스럽던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녀의 상황은 좀 달랐다.

“딸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당연히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얘기를 꺼내더니 아예 미국에서 살 거라더군요. 제 나이와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본다 해도, 평생 딸을 볼 기회가 20번 남짓인 거예요. 너무나 기가 찬 노릇이었죠. 영원한 이별은 아니더라도, 그 못지않은 심정이었어요. 공항에서 서로 영영 울며 헤어졌지만, 즐거운 신혼을 앞둔 젊은 딸과 점점 늙어만 가는 엄마가 느끼는 아픔은 천지 차이죠. 그 옛날 우리 친정엄마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냈을 텐데, 이 정도로 상실과 아픔이 크리라고는 그때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 어린 딸을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다. 아쉬운 마음도 달랠 겸 그동안 딸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가 완성됐고, 덕분에 그녀는 엄마로서의 삶 1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도 어렵지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건 더욱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부모가 말로는 ‘독립하라’고 하면서도 막상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죠.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는데 내가 외롭고 힘들다고 계속 붙잡아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상 소유욕에서 비롯된 착취나 다름없죠. 물론 저도 아주 쿨하게 딸을 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에게서 독립하는 건 누구에게나 참 힘든 일이지요.”

입체적 삶을 위한 경험 투자
그토록 힘든 입임에도 해내야 하는 까닭은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있었다. 딸의 성장은 물론 엄마의 성장까지 말이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그리고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한 원장은 이러한 성장을 통해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고 보다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같지만,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시기가 고통스러워서 어떤 이들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

지 않기도 하죠. 자신에게 주어졌던 역할의 고리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 그것이 더러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다 겪어야 할 일들이죠.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찾는 오뎅이처럼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성숙해야 왜곡과 갈등 없이 자녀와 잘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이고 삶의 키워드는 ‘성장’이라고 언급한 한 원장은 몇 해 전 과감히 유학을 결정했다. 딸도 결혼하고 한창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차였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의아해했

등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남자가 된다거나, 공학자가 된다거나 하는 비현실적인 바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내가 해오던 것을 더 심화하려는 욕구였기에 조금만 발돋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돈을 경험에 투자하자’고 마음먹었죠.”

“언젠가 제인 구달이 한국에 왔을 때 백발을 늘어뜨린 수수한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여든이 넘는 나이에 민낯이었는데도, 메이크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더군요. 코코 샤넬은 ‘스무 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쉰 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라고 했는데, 자기 삶을 잘 다져온 이가 뽐어내는 고유의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만의 향기를 품는, 아름다운 중년의 딸을 보고 싶습니다.” 글/이재혜 기자 jyelee@사진/오봉문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미국서 결혼한 딸에게서 독립하기
‘인생 전환점’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잠재성 실현 위해 늦은 나이에 유학
기품 있는 중년 되려 꿈 품고 살아요



기품 있는 중년의 아름다움
그러나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자녀 세대의 경우 개인의 성장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다. 한 원장은 자신을 찾아오는 워킹맘들의 우울한 심정을 절절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워킹

맘으로 고단한 현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단, 허덕이며 사는 삶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땐 당연히 먹고살려고 일하지, 자기실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계를 위한 일이 꿈을 이루는 일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자기 꿈을 위한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도 조각을 쌓다 보면 언젠가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애 키우고 일하느라 아직은 바빠더라도 가슴 한편에 꿈을 품고 살아야 언젠가 이모작, 삼모작의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짬짬이 단 15분이라도 취미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한 원장 역시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즐겨온 취미가 있다. 바로 ‘헬로’다. 딸아이가 세 살 무렵 연습용 첼로를 샀는데, 이제 중급 정도의 실력은 된단다. 자신의 여든 살 생일에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직접 연주하리라는 아무진 꿈도 생겼다.

“인생 별 것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가라”라며 힘든 시절 그녀를 위로했던 친정어머니의 말씀처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도 해본다. 그런 한 원장 역시 딸아이가 늘 즐겁게 또 아름답게 중년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다.

“임팩트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

배준학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부사장

“투자기업 성장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새로운 투자 트렌드 임팩트펀드 7곳 펀드매니저 모인 ‘투비회’ 투자 규모 2000억

“임팩트 투자의 매력은 투자의 만족도가 플러스알파라는 점입니다. 투자하는 기업이 회사의 성장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기쁨은 두 배가 되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가 최근 한국에서도 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업계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배준학(사진) 마그나인베스트먼트(이하 마그나인베) 부사장은 투자업계에서 임팩트 투자 확산에 가장 활발히 힘쓰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임팩트 투자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들의 모임인 ‘투비(To Be) 회’의 회장이자, 250억 원 규모의 ‘임팩트 인헨스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임팩트 투자 철학은 확고하다. 임팩트 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동시에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배 부사장은 직접 여러 투자 심사를 다니면서 경쟁력이 있고 사회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나 기업을 발굴해 직접 투자를 제안한다.

그는 “사회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이나 경쟁력이 다소 약하더라도 투자해 달라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임팩트 기업일수록 더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사장은 투자업계에서 임팩트 투자는 나이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사회적 성숙과 함께 정부에서 출자 물꼬를 터주면서 국내에서도 임



팩트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창업자들 대부분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투자자들도 임팩트 투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임팩트 펀드를 다루는 펀드매니저들과 ‘투비(To Be) 회’라는 모임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투비회의 임팩트 펀드 투자 규모는 약 2000억 원 규모이며, 마그나인베를 비롯해 △신한대체투자운용

△비하이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더웰스인베스트먼트 △고려대기술지주 등 7개사 대표펀드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KB 대표펀드매니저인 이지애 이사가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투비(To Be) 회’라는 작명을 했다”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임팩트 투자를 비롯해 다양한 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해서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의 신(新)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임팩트 투자 전문가인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 배 부사장은 “임팩트 기업을 유니콘기업(상장 전 기업가치 1조 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는 임팩트 투자는 수익률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세계적 통계를 보면 임팩트 펀드의 수익률이 일반 펀드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시총 상위 기업이 되고 대기업들도 임팩트 기업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LS엠트론 트랙터 사진·UCC 공모전
신규호 씨 ‘배추부자’ 사진부문 대상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기업 LS엠트론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LS엠트론 하이테크센터에서 ‘제6회 LS트랙터 사진·UCC 공모전’ 시상식을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상금 1300만 원으로 사진 부문에서는 신규호 씨가 ‘배추부자’ <사진> 작품으로 영예의 대상을 받을 예정이며, 상금은 300만 원이다. 최우수상은 노상권 씨가 ‘사랑을 그대에게’, 송현준 씨가 ‘기지개를 펴다’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금은 100만 원이다. 그 외 우수상 10명에게도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UCC 부문에서는 이문상 씨 외 2인(박찬홍·이상학) ‘백문이 불여일견’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중소 출신 의원 당선인 8명 ‘입법지원 협의체’ 구성

3선 박덕흠 의원이 회장 맡기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 출신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 8명과 함께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저녁 여의도 한식당에서 중소기업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회장이 협의체 구성을 즉석에서 제안했고, 당선인들이 수락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선인은 중소기업계 출신 8명이다. 여당 4

명(김교흥, 이상직, 김경만, 이동주), 야당 4명(박덕흠, 한무경, 최승재, 이영)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체는 중소기업계와 국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 협의체로 활용될 예정이다. 회장은 구성원 중 최다선 의원인 3선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북 보은 옥천영동동곡산), 간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맡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1대 국회에 중소기업계 출신 인사가 다수 진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과거 어느 때



박영선(오른쪽 다섯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여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저녁 여의도 한식당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당선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다 크다”며 “친중소기업정책 입법이 강화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한국타이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13곳 선정...최대 1000만원 지원



2019년 드림워드 프로젝트에 선정된 ‘에버팜’의 치유농장 프로그램 모습.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2020 드림워드 우리 마을 레벨업 프로젝트’에 참가할 13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14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따르면 ‘2020 드림워드 우리 마을 레벨업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민이 주도해 해결하도록 돕는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기획한 ‘이익환원형’ 기관에는 최대 1000만 원, 교육·예술·보건·환경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 활동을 기획한 ‘주민참여형’ 기관에는 최대 7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활동비 외에도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은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靑 경호처장에 유연상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경호처장에 유연상 현 경호처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4일 청와대가 밝혔다.



유연상 신임 차장은 전북 고창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를 받았다. 공채 3기로 대통령경호처에 임용돼 경호부장,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거쳐 경호처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경호관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주영훈 현 차장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환 기자 whan@

이노션, 코로나19 의료진에 ‘응원 반창고’ 40만매 전달

국민 응원 메시지 모아 제작

이노션 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 대표 안건희)는 국민의 응원 메시지가 새겨진 ‘응원 반창고’를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노션과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달 22일부터 응원 반창고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1000건 넘는 국민 응원 메시지를 모았다. 이 응원 문구가 새겨진 의료용 반창고를 제작해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직접 배포했다.

먼저 서울 △서남병원 △강동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에 약 2만 매를 전달했다. 응원 메시지는 계속 모집한다. 전국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영케미칼이



지원한 반창고 총 40만 매에 응원 문구를 새겨 차례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이 응모한 응원 메시지를 포함해 응원 반창고 제작 및 전달 과정, 의료진 인터뷰 영상 등은 응원 반창고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그룹은 대구의료원·동산병원 등에 도시락 지원

임직원 3960명 헌혈 동참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감염환자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의료원과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11일부터 더위 해소 간식 세트를 제공했고, 15일부터는 고영양식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락과 간식은 최대 3개월 동안 주중에 매일 지원되며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진뿐 아니라 행정직원 등 현장 지원 인력에도 제공된다.



현대·기아차 임직원은 의료현장 지원을 위해 헌혈캠페인에도 참여했다. 3월 초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시작된 단체 헌혈 캠페인은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지금까지 총 3960명의 직원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들을 이송하는 전국 소방본부 구급차에도 정밀 점검과 소모품 교환 등을 무상으로 시행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고상미
- ◆한국금융연구원 ◇보직 발령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박종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전 프로젝트추진단장 정민형
- ◆BNK부산은행 △상무 강중훈
- ◆KBS △대전방송총국 편성제작과장 김한석

부음

佛 ‘20세기 최고 바리톤’ 가브리엘 바키에 프랑스의 20세기 최고 바리톤으로 꼽히는 성악가 가브리엘 바키에가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6세. 바키에는 1924년 프랑스 남부 베지에에서 태어나 1950년 파리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뒤 1953년 벨기에 브뤼셀 모네 가극장



에서 데뷔했다. 1950년대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활약했으며,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빈 국립 오페라 등 세계의 유명한 무대에 두루 서면서 우아한 스타일과 풍부한 성량으로 사랑을 받았다.

▲전종기(전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총재) 씨 별세, 전호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형주(장안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현정(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

사)·익균(도서출판 새빛대표)·익수(공군본부 법무실장) 씨 부친상, 김현곤(열린연세정형외과 원장)·김재형(대법관) 씨 장인상, 우해량(약사)·위인영(선라이즈텍스타일 부장)·정윤경(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씨 시부상 = 14일, 전주주수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63-285-1009 ▲이봉환 씨 별세, 이한수·민수(한국코와부장)·윤미 씨 부친상, 김동필 씨 장인상 = 14일, 서울 뉴타운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2-909-4444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2005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라는 대책 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던 적이 있다.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남겨두고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분장을 만들었다.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 많은 문이 남았으나 첫 번째 문을 열지 않으면 남은 아흔아홉 개의 문도 열 수 없다.

이른 새벽, 여명과 함께 길을 나선다. 기적과 같이 피곤함이 사라지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로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어젯밤 너무나 익숙해서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언제였나 하는 듯이 오늘의 태양이 반갑다. 뚜벅뚜벅 내딛는 발걸음에 힘이 실린다. 마치 껍질을 벗어 던지고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아기 거북이처럼 무서울 것도, 거칠 것도 없다. 오늘 하루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단 하나뿐인 징검다리다. 길을 걷다 새로운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 문(門)을 만난다. 어떤 마을의 입구는 성문이기도 하고 어떤 마을은 좁은 골목이 입구를 대신하기도 한다.

문을 열면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연결되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 문은 벽이 되어 세상을 단절시킨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열리지 않은, 오래된 단단한 문이 있다. 2년 전 판문점 도보다리의 새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문이 열리기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굳게 잠겨 민족의 가슴

에 빗장을 치고 있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얼음벽이 녹아 두 세계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연결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본다.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관계 속에서 오해의 벽을 허물면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쌓인 믿음이 이해의 문이 된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은 인류에게 연결을 끊을 것을 요구한다. 바이러스는 연결을 통해 확산되고 인류는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가 격리(stay at home), 봉쇄(lock down), 입국 제한 등 예전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미의 용어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착한 선택으로 쓰인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대 문명의 철학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연결을 위한 인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연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기 어렵다면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연결이 대체할 것이다. 교육도 비즈니스도 문화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나무나 벽돌로 된 문을 대신하여 컴퓨터와 휴대폰의 모니터가 연결의 문이 되고 있다.

문의 또 다른 의미는 '마디'이다. 하나의 세상을 마무리하고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마디'이고 '단락'이다. 2005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라는 대책 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던 적이 있다.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남겨두고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분장을 만들었다. 남겨둔 숙제가 크다는 이유로 19년 묵은 대책 과제를 해결했음에도 그 의미를 평가 절하하는 사람도 있었다. 100개의 문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 많은 문이 남았으나 첫 번째 문을 열지 않으면 남

은 아흔아홉 개의 문도 열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인류의 삶은 문 하나하나를 넘으면서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간다.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길을 걷다가 만나는 문과 같다. 어떤 문을 어떻게 여는지가 역사를 결정한다. 오늘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대로 남겨진다. 앙드레 지드는 그의 소설 '좁은 문'에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희생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한다. '광장'과 '회색인'의 작가 최인훈은 딸에게 권하는 마지막 추천 도서로 '좁은 문'을 꼽으면서 사람이 어찌 사는 게 옳은 길인지 괴롭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남북이 이념으로 갈라진 사회에서 중도의 합리적 지식인의 삶을 어렵게 그리고 있는 작가의 마음이 전해진다.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바른길은 좁은 문을 지나야만 나타난다.

정책발언대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장



체계적 지하수 관리로 가뭄 면역력 키워야

가뭄 시 비상급수를 위해 개발된 관정은 대부분 연중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관정의 효율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또 다른 새로운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런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지하수위 저하,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가져와 노후되고 방치된 관정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하수 관정은 개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과 관리인식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형편이다. 지하수자원관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2001-2017)에 따르면 전국 263개 공공구역의 공공관정 2060공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조치가 완료된 관정은 1739공이고 321공(16%)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 공공관정 중에도 개발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관정이 4437공으로 전체의 17%(농업생산기반통계연보, 2018)에 달한다. 2015년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농어업용 공공관정 정비'를 통한 지하수자원 추

가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후된 관정의 정비를 통해 관정의 효율을 2~11% 개선할 수 있어 1공당 40㎡/일의 지하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또 기존 관정의 재활용 비용은 신규 관정 개발비용의 12.6분의 1에 불과해 기존 관정의 효율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하수자원관리사업(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01-2021)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농어촌용수 구역 352지구의 공공관정을 조사해 개발과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과 수질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www.groundwater.or.kr)에 등록돼 누구나 로그인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도 지하수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시설물의 전수 조사와 관리시스템 구

축은 물론 가뭄에 대비한 대용량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어촌공사와 협업해 2018년부터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지하수 부존량 조사를 진행해 2개 시·군(용인시, 양평군)에서 연간 100만㎡의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했고 2022년까지 안성시 등 7개 시·군의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도 경상북도는 공공관정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지하수 총량제 개념을 도입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지하수의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은 그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농업업 재해 최소화를 위해 상시 지하수 자원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평상시 제대로 관리된 면역력은 바이러스 침투 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농업용 공공관정의 정비와 재활용 등을 통한 관정의 기능 회복과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은 미래에 예견된 물 부족에 대한 든든한 보완재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밀리 디킨슨 명언

“희망은 영혼에 걸터앉은 한 마리 새다.”

사랑과 이별, 죽음, 영원 등의 소재를 즐겨 다룬 미국의 시인. 평생 독신으로 지낸 그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늘 집안에서 은둔하며 단조로운 삶을 살았다. 평생 2000여 편의 시를 썼으나 생전에는 4편만 발표되었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30-1886.

☆ 고사성어 / 병형상수(兵形象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무릇 군대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군대의 운용도 적의 실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이 결정되고, 군대도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夫兵形象水 水之形 避高而趨下 兵之形 避實而擊虛 水因地而制流 兵因敵而制勝].” 원전은 손자 병법(孫子兵法) 허실(虛實)편.

☆ 시사상식/실버 서퍼(silver surfer)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고령층을 일컫는 신조어로 등장했다. 차세대 IT산업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며, 헬스케어 등 스마트 신산업 시장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신조어 / 홀로가

‘홀로가’는 ‘홀로’라는 한글에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영어 ‘올로(YOLO)’와 집을 뜻하는 한자어 ‘가(家)’가 결합한 단어. 올로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면서 생겨난 신조어. 이들은 카페 같은 집, 책방 같은 거실, PC방 같은 방처럼 집의 인테리어를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채운다.

☆ 유머 / 잘못된 판단

약국에 들어간 남자가 “딸꾹질 맞는 약 좀 주세요”라고 하자 약사는 약을 찾는 척더니 갑자기 남자의 뺨을 후려치며 희죽거리며 물었다. “어때요? 딸꾹질 딱 멎었죠?” 남자가 약사를 뺨이 쳐다보며 한 말. “나 말고 내 집사람인데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저수첩



김범근 금융부/nova@

기대보다 우려 큰 2차 소상공인 대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 가운데 95%인 950만 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즉 은행의 부담금은 50만 원까지 내려가 대출 실행이 쉬워질 것 이란 논리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중은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일원화되면 자연스럽게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고신용자들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더 많은 대출을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하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서 더 많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차 때는 7~10등급 저신용자들의 경우 소진공이 도달해 대출을 해줬다. 소진공을 통해 긴급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자는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공인들은 고신용자들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더 많은 대출을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하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서 더 많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차 때는 7~10등급 저신용자들의 경우 소진공이 도달해 대출을 해줬다. 소진공을 통해 긴급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자는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1부 (02)799-2647
산업부 (02)799-2644

정치경제부 (02)799-2663
자본시장2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사회경제부 (02)799-2612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국제경제부 (02)799-6741
부동산부 (02)799-2637
뉴스랩부 (02)799-2664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호반건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원한경 플랜에이치 대표

“공간이라는 플랫폼에 엮을 모든 혁신 고민”

“여기가 우리 플랜에이치벤처스(플랜에이치) 명예의 전당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 중 투자금 상환에 성공한 기업, 상장 성공한 기업,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M&A)된 기업을 여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원한경 플랜에이치 대표는 사무실을 소개하다 빈 선반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만큼 시간은 걸리겠지만 짧으면 3년, 길어도 5년이면 금방 성장해 선반을 빼곡 채우게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창업 초기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투자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관) 법인인 플랜에이치를 설립하고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빼가 굵은 원 대표를 선장으로 영입했다.

플랜에이치는 지금까지 스타트업 4곳에 성장 마중물을 냈다. 원 대표는 “올해는 그룹과 다른 계열사에서 자금을 유치 받아 오픈 이노베이션(외부 기업에서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대신 내부 자원을 공유하는 것) 펀드를 만들 것”이라며 “펀드가 조성되면 하반기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한다”고 밝혔다. 20억 원 규모로 스타트업 10곳에 신규 투자하는 게 올해 플랜에이치 목표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사업 혁신성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플랜에이치 창업은 다른 건설사도 스타트업에 눈을 돌리는 자극제가 됐다. 기업 문화가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계에서 스타트업에 손을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 원 대표는 “건설산업은 누적 수출액 1위 산업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산업인데 혁신에는 제조업보다 느린 게 사실”이라며 “호반건설에서도 혁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문제는 혁신을 홀로 이루기 힘들다는 점이다. 원 대표는 “건설업은 공간을 만드는 산업이다. 생활하기 편한 공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필요한 모든 기술을 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와 스타트업이 협업하면 이 같은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원 대표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그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다시 우리 설계·개발팀이 받아들인다면 사업 혁신성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든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존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

플랜에이치가 자리를 잡는 데는 김대현 호반건설 기획 담당 임원(부사장)의 역할이 컸다. 김상현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인 그는 플랜에이치 설립의 밑그림을 주도했다. 김 부사장은 지금도 매주 플랜에이치 전 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꼼꼼히 챙긴다. 원 대표는 김 부사장 역할에 대해 “직접 기획한 사업이라 애정이 있다”며 “플랜에이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운영 지원, 투자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랜에이치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역시 기술력이다. 원 대표는 “산업 현장과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드 테스트(현장 시험)를 넘길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팀



원한경 플랜에이치벤처스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플랜에이치 출범에 김대현 호반건설 기획 담당 임원(부사장)의 역할이 컸다”면서 “지금도 김 부사장이 매주 임원회의를 챙기며 투자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건설사가 왜 스타트업에 투자? 한국 경제 견인한 산업임에도 혁신에 있어선 제조업에 뒤쳐 보수적 기업문화 변화 주도 뜻

호반건설서 지난해 설립 스타트업 4곳에 성장 마중물 올해 10곳에 20억 규모 목표 기술력·노하우 갖춘 팀 선호

건설업 혁신과 밀접한 아이템 스마트시티·공유경제로 집약 건설·부동산에 ICT 결합해 B2B·B2C 분야 프롭테크 지향

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이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해도 건설업은 구매 부서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야”라며 “투자를 매개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현장 테스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공유경제, 두 바퀴로 건설업 혁신 가속화 = 플랜에이치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시티와 공유경제다. 원 대표는 “모(母)회사가 호반 건설이다 보니 건설업의 혁신과 밀접한 아이템을 찾았고 스마트시티와 공유경제라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도시 구석구석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마트시티에선 기술 혁신이 특히 중요하다. 원 대표는 “스타트업은 미래 기술의 집합 사업”이라며 “주택·도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IoT(사물인터넷) 등을 모두 아울러서 기술 집약적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컨소시엄 조직 같은 협업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게 원 대표 생각이다.

스마트시티가 전에 없던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면 공유경제 분야에선 기존 공간을 재편, 가치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플랜에이치는 공간 재창출과 그 안에 내용 모두를 고민한다. 원 대표는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거공간을 만들고 그 안

★원한경 대표는 한국자산평가 비상장주식-대체투자자산 평가팀 팀장과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팀장,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책임연구원,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전략기획 실장을 지낸 벤처캐피털 전문가다. 지난해 플랜에이치의 첫 선장을 맡았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에 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채워 넣는 게 공유경제 핵심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공동육아,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공유 공간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예시했다.

플랜에이치부터 공간 공유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그룹 사옥 4층 약 1000㎡를 일종의 공유 오피스인 ‘이노베이션 허브’로 만들어 스타트업 7곳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플랜에이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물론 창업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도 문호를 넓혔다. 이르면 다음 달엔 4층 남은 공간 약 1500㎡도 이노베이션 허브로 꾸밀 계획이다. 원 대표는 “이노베이션 허브 입주 기업과 가까워서 애로를 듣고 금방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공간이라는 플랫폼에 엮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이 투자 대상” = 원 대표는 플랜에이치의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그는 우선 프롭테크(건설·부동산에 ICT를 결합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원 대표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에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부동산 상품을 평가하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B2B(기업 간 거래)에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면밀하고 혁신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원 대표와 플랜에이치는 더 담대한 투자를 꿈꾸고 있다. 원 대표는 “선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신기술부터 헬스케어까지 공간이라는 플랫폼에 엮을 수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플랜에이치의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중화 기자 pbell@

사설

삼성·현대차 미래차 동맹, 이런 게 혁신모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함께 손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13일 삼성 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계 1·2위 그룹을 이끄는 총수두사람이 사업협력을 위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주력 분야가 다른 두 그룹의 교류는 없었고, 오히려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였던 만큼 상징성이 크다.

이날 삼성SDI 공장을 직접 찾은 정 수석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미래 전기차용 전고체(全固體) 배터리 기술개발 현황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키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훨씬 능가하는 차세대 획기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실용화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최근 삼성종합기술원이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1000회 충전이 가능한 혁신 기술의 개발성과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메이커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내놓았다. 앞으로 내놓을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출시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미래의 3대 신성장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

래차를 꼽고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다. 삼성도 자동차 배터리를 신수종(新種)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번 협력이 삼성과 현대차가 강점을 지닌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가 결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미래 시장 선점의 계기가 될 만하다. 당위성도 충분하다. 일본만 해도 자동차의 수요와 전자의 파나소닉이 배터리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배터리 분야에 그치지 않고, 삼성과 현대차의 전략적인 제휴 범위는 넓다. 미래차의 핵심 개념은 자율주행과 전동화(電動化)다. 삼성은 그 기반인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電裝), 디스플레이, 센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세계 선두주자다.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 기술과 공급망, 시장 등에서 미래차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과 현대차의 파트너십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이들이 서로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의 혁신 역량을 모으면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뚫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그룹 총수의 협력 논의를 어느 때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 또한 이 같은 기업 간 제휴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혹시 있을 걸림돌을 없애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은 다른 기업들에도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영화로 보는 세상

40년 전 5월 광주로 들어간 ‘택시운전사’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되기 전에도 ‘광주사태’를 다루었던 영화는 몇 편 있었다. 그중 ‘화려한 휴가’는 광주의 비극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아낸 첫 번째 영화로 700만 명의 관객 동원으로 흥행에도 성공했다. 이어 그날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한 평범한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과 푸른 눈의 외국인 기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다. 바로 ‘택시운전사’다.

당시 불행하게도 모든 언론은 광주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신군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 버렸다. 그러나 일부 해외 언론의 취재와 보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중에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가 어렵게 찍은 광주의 필름이 여러 사람들의 숨은 조력으로 해외로 무사히 나갈 수 있게 한 힘이 크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광주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졌을까? 외부 불온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나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사태로 알려져

있던 광주의 열흘은 한 외국인 기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상 밖까지 진실이 알려진다.

극중 택시운전사 만섭은 서울로 돌아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취재 자료를 우연히 알게 된 국내 한 신문사 기자에게 전달하나, 그 기자는 누구 신세 망칠 일 있느냐며 슬그머니 쓰레기통에 버린다. 영화 편집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 장면이지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심히 부끄러웠다.

실존 인물인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는 광주의 트라우마로 고생하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의 아들 김승필 씨가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혔다. 물론 힌츠페터 기자도 고인이 되었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광주정신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비록 이번 40주년은 코로나 때문에 공식행사가 없어 아쉬울 따름이지만 다시는 우리 언론이 이런 죄과를 역사에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결의를 다지는 5·18 40주년이 되었으면 한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SAMSUNG



우리는 미식가 형제
 우리는 밤마다 맛의 모험을 떠난다
 우리에게겐 넓은 보물창고가 되어주는 비스포크가 있다

모두에겐 자신만의 비스포크가 있다

16개의 컬러 x 11개의 타입 = 원하는 라이프에 모두 맞춤
 당신만의 비스포크는 무엇인가요?



Glam White
 Satin Sky blue
 4도어 + 3도어

0 W S 0 4 3

지금 삼성닷컴에서
 #MYBESPOKECODE를 만들어 보세요

BESPOKE